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영 준

2020년 2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 연구

지도교수 송 현 정

이 영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이영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u>최대희</u>	(인)
위 원	<u>권유성</u>	(인)
위 원	<u>송현정</u>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Design of Singing Data Archive for Korean Education

Lee, Young-Ju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ng, Hyun-jung,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4
1)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4
2)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연구	8
3.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0
II. 아카이브와 노래 활용 교육의 이해	12
1. 아카이브의 이해	12
1)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사	12
2) 아카이브의 분류와 사례	14
3)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19
2. 노래 활용 교육의 이해	21
1) 앳킨스-쉬프린의 기억모형	22
2) 로자노프의 암시적 교수법	23
III. 노래 교육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전제	26
1.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검토	26
1)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분석의 필요성	26
2)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분석	27
3) 노래 선정 요소 분석의 종합	33
2.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설문조사	36
1)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설문	37
2)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설문	39
3) 설문 종합 및 아카이브 구축의 지향점	40

IV.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42
1.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체계화를 위한 개요	42
2. 노래자료 선정 과정 및 예시	47
1) 초급 예시 : 악동뮤지션 - 오랜 날 오랜 밤	47
2) 초급 예시 : 홍진영 - 산다는 건	51
3) 중급 예시 : 산이 - 아는 사람 얘기	53
4) 고급 예시 : 박효신 - 야생화	57
3. 아카이빙 절차와 아카이브 청사진 및 설명	61
1) 아카이빙 절차	61
2) 아카이브 작동의 실제	63
V. 결론	68
<참고 문헌>	71

< 표 목 차 >

<표 1> 노래자료 선정 요소와 아카이브 구현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요소 분류	33
<표 2> 악동뮤지션-오랜 날 오랜 밤 노래 텍스트 중 일부	48
<표 3> 악동뮤지션-오랜 날 오랜 밤 노래 텍스트 분석	49
<표 4> 홍진영-산다는 건 노래 텍스트 중 일부	51
<표 5> 홍진영-산다는 건 노래 텍스트 분석	52
<표 6> 산이-아는 사람 얘기 노래 텍스트 중 일부	54
<표 7> 산이-아는 사람 얘기 노래 텍스트 분석	55
<표 8> 박효신-야생화 노래 텍스트 중 일부	58
<표 9> 박효신-야생화 노래 텍스트 분석	59
<표 10> 아카이빙의 절차 구현도	61

< 그 립 목 차 >

[그림 1] 보존형 아카이브 :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보존서고	15
[그림 2] 전시형 아카이브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16
[그림 3] 참여형 아카이브 : 인간과기억아카이브	17
[그림 4] Atkinson & Shiffrin 기억모형(1971)	22
[그림 5]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원리	35
[그림 6]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체계	42
[그림 7]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1	63
[그림 8]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2	64
[그림 9]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3	65
[그림 10]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4	66
[그림 11]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5	67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구축 설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던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스템적 접근성을 증진시켜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노래 텍스트와 멜로디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오는 근접 기억 자극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노래를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중 지각에 의한 자극과 반복 자극에 의한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작은 별’의 멜로디를 들으면 ‘ABC 노래’를 떠올리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교육 방법은 운율을 통해 익힌 단어나 문장이 운율을 잊지 않는다면 장기기억으로 보존되는 효과가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운율이나 노래를 통해 단어나 문장을 떠오르게 만드는 방법은 이미 오랜 기간 활용되고 있었으며,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픽셀 튀르콰주(1999)의 연구 이후로 김경지(2001), 변혜원(2007), 김혜민(2017) 등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육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 방법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노래를 활용한 교육 방법은 그것을 활용할 교수자에게 다양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와 텍스트를 사용하는 만큼 교수자는 다양한 노래와 노래 텍스트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달 표현이라는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교수자는 그것을 곧바로 교육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전달 표현에 해당하는 노래와 텍스트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교육 자료 선곡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에서 노래와 노래 텍스트에 대한 교수자의 사전 지식은 사실상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찾아낸 사례에 대하여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례와 학습 내용이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해당 텍스트가 가지는 학습 요소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한 노래에 나오는 언어요소 A, B, C, D를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와 A+B, C+D, 나아가 (A+B)+(C+D)가 이 노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학습 과정은 학습 대상,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교수자는 노래와 텍스트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그것을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단순 암기를 비롯하여 텍스트 전체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학습 대상, 학습자의 수준, 흥미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교수자가 정규수업 과정에 적용해야 할 노래자료를 찾고 교육 자료화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노래와 텍스트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현실로 이어지게 만든다.

실제로 류희정(2011)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후속 연구에서 노래자료와 노래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의 연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자료를 리스트화한 연구는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동일하다.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래들이 언어 교육적 접근과 분석을 반복, 지도안과 교육 후 설문까지 진행되었지만, 이들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논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더군다나 이들 자료는 광범위한 주제와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 교수자가 감당하기에는 실질적인 무리가 따른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하려면 이들을 단순히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려는 교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업에 필요한 카테고리별 접근 혹은 시대별, 인기별 접근과 같이 교

수자가 자신의 수업에 활용하려는 노래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교수자는 해당 수업에 노래를 활용하고자 할 때 노래부터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교수자는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는 노래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수업 활동에 자료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구축된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래에 대한 가이드나 해당 노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으니, 그동안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교수자의 업무 과중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가치를 재고하고, 그에 따른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노래자료의 범위는 보편적인 학습 대상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한국 대중가요로 제한한다. 초급 학습자에게 유용하고 학습 대상자 중 결혼이주민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동요의 경우 기본 DB 구축 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모든 한국 대중가요가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용 노래자료 제작 시 충분한 검토 과정이 재고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로의 활용이 용이한 노래를 1순위로 두되, 추후 순화가 가능한 수준의 노래를 순화어, 대체어 찾기 교육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과 그에 따른 자료 목록 구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자료로써는 기초적 가이드 제공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자료로써의 내용 검토와 개인 수업에 따른 추가적인 변환을 요구한다.

노래자료 구축은 김중섭(2017)의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차)」를 중심으로 TOPIC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분류한 뒤 이를 현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어휘, 문법, 상황 분야 등으로 나누어 카테고리 분류로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교수자가 한국어 교육에 노래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 또한 피드백 참여 및 개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 검토는 크게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 양상과 아카이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 양상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있어 검토가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는 그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그 연구 성과들이 잘 드러나 있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후 아카이브 선행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보다 큰 개념인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1999년 껍셀 튀르퀴주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껍셀은 한국어 교수 학습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노래를 활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기억 부담을 줄여 주고, 흥미를 유발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수업의 권태감을 해소해주고 나아가서는 학습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유도하기 쉽다 주장하였다.

자료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학급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노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심상을 담은 노래,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과 맞는 노래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노래 선정 시 필요한 기본요소를 제시하였으며 대학교 1학년, 2~3학년, 4학년의 세 등급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각각 민요, 대중가요, 가곡을 활용한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껍셀의 연구는 당시 앙카라 대학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고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초기자료라는 점, 자료의 선정이나 위계화의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나 자료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부족하고 선정된 예시도 세 곡으로 그쳐 다양한 활용예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껍셀의 연구 이후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된다. 노래자료 활용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질적 연구, 노래자료 구축을 위한 양적 연구, 노래자료 활용의 다양성을 주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동일한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연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나 파생된 중점 내용은 서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볼 수 있다.

(1) 노래자료 활용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질적 연구

이 연구들은 노래 활용 교육을 ‘노래와 노래 텍스트라는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언어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노래의 교육적 실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연구는 양윤희(2005), 변혜원(2007), 김혜민(2017)의 연구가 있다.

먼저 양윤희(2005)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노래와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장기기억으로의 연결,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의 선정 방법과 유의점으로는 멜로디(경쾌하거나 반복적인 리듬), 어휘의 난이도, 학생의 수준, 노래의 속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의 5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학습자가 어휘, 문장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양윤희의 연구는 노래뿐만 아니라 율동이나 팻말 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 기존의 학습자 중심 학습법에서 나아가 교사와 학습자의 협동 중심 수업을 통해 실용적인 한국어 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교수자가 기존 수업에 활용하려는 노래 자체를 ‘창작’해야 한다는 점, 그렇게 만든 노래가 어떤 텍스트를 가진 노래인지는 제시해놓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변혜원(2007)과 김혜민(2017)의 연구가 있다. 변혜원은 SSIMH¹⁾현상을 기반으로 한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의 장·단기 기억력 실험을 하였고, 김혜민은 그와 더불어 앳킨슨·슈프린 기억 모형²⁾을 통한 노래 활용 언어

1) Song-Stuck-In-My-Head, 머피(Murphey, 1990)는 노암 촘스키(Noam Chomsky)가 주장한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습득장치)에 대한 발현 예시로 SSIMH 현상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무의식적 시연을 통해 들었던 노래의 가사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맴도는 현상을 말한다.

2) 이 부분은 노래 활용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교육 중 어휘습득의 장·단기 기억력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두 연구자의 연구는 기존 교수·학습법 위주의 연구에서 노래 활용 교육 자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효과 검증을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노래자료 구축을 위한 양적 연구

이 연구들은 앞서 나온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난이도나 주제별 내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노래자료를 제시하였다.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는 아니나 추후 연계 가능성이 있는 연구 자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양지연(2009), 류희정(2011), 김덕경(2017), 김학현(2019)의 연구가 있다.

양지연(2009)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1』~『한국어6』의 학습 목표, 어휘, 문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노래자료들을 각각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따른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선정 방법이나 교육 방법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답습에 그친 것들이 많지만 등급별로 세 가지씩 노래를 제시하고 또 그에 따른 지도안을 제시하는 등의 양적 결과물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추후 해당 수업을 진행할 교수자에게 또 이 연구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류희정(2011)의 연구는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던 문법 중심의 난이도별 분류체계와 달리 문화 주제별 분류를 추가 한 점도 눈에 띈다. 해당 분류는 정신문화, 언어문화, 제도문화, 생활문화, 산업기술문화, 역사, 자연과 기후, 문화재 등의 문화분류로 나뉘며 노래자료들을 그것에 맞게 배분하여 해당 문화 교육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류희정의 연구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어휘, 문법, 발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또 기존 문법적 난이도 분류와 더불어 문화 주제별 분류에 10여 곡 이상의 많은 노래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덕경(2017)은 한국어 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그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연

계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표준한국어 교육모형」을 기준으로 초급과정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 1』의 10개 과를 대상으로 각각에 맞는 노래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동요, 대중가요, 민요를 활용하였다.

김덕경의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국립국어원의 교육모델에 초급과정이지만 거의 모든 단원에 각각의 노래자료 적용 예시와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수업 지도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중급과 고급과정에 대한 수업 방안 연구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긴 했으나, 현재 가장 대표성을 띠는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노래자료와 활용 예시를 제안한 점은 차후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DB 구축에도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학현(2019)은 교수·학습 방법 위주로 논의되던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양과목의 개설을 위한 교수 요목을 제시하였다. 그 때문에 노래의 선정에서도 음악(장르)적 구분, 주제(문화)별 구분, 어휘지수, 문법지수, 문장길이에 따른 난이도 선정 등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노래자료를 분석, 초, 중, 고급으로 분류하였다. 수업의 방법에서도 다섯 가지 예시를 들고 있으며 교수 요목의 실재를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 논의되던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 연구를 종합했다 볼 수 있다.

김학현의 연구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모두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선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여 하나의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교수 요목의 틀로써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의 기본인 어휘, 문법부터 문화의 이해까지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총망라하여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노래자료 활용의 다양성을 주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

이 연구들은 기존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과 동시에 그것을 활용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들로써 노래와 노래 텍스트만이 아닌 뮤직비디오, 드라마(OST), 반주 파일(MR), 스토리텔링 등 노래와 관련된 여러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자극을 통한 학습 효과를 확인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경지(2001), 박재희(2008), 정영순(2015) 등이 있으며, 먼저 김경지(2001)는 영화와 노래를 활용한 교육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 결과를 통해 그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영화 부분을 제외하고 김경지의 연구는 노래와 영상을 합친 뮤직비디오의 교육적 활용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후 사례를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뮤직비디오가 없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뮤직비디오도 많다는 점, 제시한 노래 중 수업방식의 유사성을 들어 투 헤븐 단 한 곡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박재희(2008)는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하기 위해 음악 파일, 가사 파일 그리고 기존에 김경지가 논의했던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반주 파일(MR) 또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연구의 실제에서 명확하게 다루지지 않아 선행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정영순(2015)은 대중가요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연구가 시청각적 활용이 가능한 드라마 OST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드라마 OST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배경이 되는 드라마 속의 한국 정서(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영순의 연구는 기존 한국어 어학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유학센터 유학생들의 교육 방법을 포함한 적용사례라는 점, 학습자들의 학습 배경이나 학습 수준에 따라 단계별 수업을 고안하고 그 방법을 실제 절차에 따라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또 다른 연구로 두위(2007), 여은혜(2012), 후인 투이 미 웬(2012), 송재란(2014), 나옥주(2016), 이인혁(2017), 심춘우(2019) 등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기존에 논의되던 연구와 비슷하거나 이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2)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연구

앞서 아카이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성과가 아직 미진하여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또한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정보는 2007년에 발표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 절차」에서 “한국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아카이브 교육적 활용의 첫 사례라 볼 수 있는 김희경(2008)의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비스한 ‘6월 민주항쟁 초·중등 교육사이트’, 국가기록원에서 서비스한 ‘나는 대통령3’ 코너 등을 예시로 들며, 역사 교육에 있어 효율적인 접근성을 지닌 아카이브를 사료로 활용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연구 사례는 거의 여기에 해당하며 비슷한 연구로는 이태은(2010), 신예진(2015), 윤지은(2018)의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육은 아니지만 국어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춘향가 원형 아카이브 구축 설계 사례가 있다. 권세일(2017)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4종의 국어 교과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종의 국어 교과서와 1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국어과 판소리 영역에서 「춘향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밝히며 「춘향가」가 사실뿐만 아니라 음악적, 연극적 요소를 담고 있어 원형 아카이브로 구축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춘향가」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추가로 학습에 활용할 삽화 제작, 서사에 따른 분류 등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한 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⁴⁾에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권세일의 연구는 국어과 교수·학습에 있어 아카이브와 접목을 이루려고 시도했다는 점, 단순 제시가 아닌 실질적 구축의 전 단계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수집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연구자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춘향가」라는 한정적 작품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실제 교수·학습 자료 구축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 아카이브 구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3) 역대 대통령들의 수결(서명), 대통령 서한, 공문서 제작하기 등을 서비스하였다.

4)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전 학습을 말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노래와 노래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과 아카이브에 대한 동시적 이해를 전제로 하며, 노래자료 선정 유형에 대한 기존 자료 분석, 구축될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필요 기능에 대한 논의, 노래자료에 대한 예시, 아카이빙 세부 절차와 주의점에 대한 논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한 청사진 제시 등의 논거가 필요하다. 그에 대하여 진행될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장에서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 검토는 이후의 연구사 정리, 아카이브 구축의 기본 설문조사 때 활용한다.

II장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형태, 성격, 매체에 따른 분류를 통해 아카이브별 특성 파악과 교육적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추후 구축할 아카이브의 형태, 성격, 활용할 매체 설계에 활용한다. 노래 활용 교육의 경우 문헌 연구 방법과 모형 분석 방법을 통해 다중지능이론과 앳킨슨-쉬프린(Atkinson · Shiffrin)의 기억모형, 게오르기 로자노프(Georgi Lozanov)의 암시적 교수법을 분석하여 노래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재고하고 노래 활용 교육의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III장에서는 근거 이론 방법과 질문지법을 활용한다. 그에 따라 먼저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을 검토하고 이후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를 살펴본다.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검토에서는 곽셀(1999)부터 김학현(2019)의 연구까지 활용된 노래자료 선정 방법을 분석하고, 선정 요소의 변천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검토는 노래 선정 요소의 시대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종합하여 추후 아카이브에 활용할 1차 분류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조사는 현장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노래자료 아카이브에 바라는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 활용 교육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당위를 살펴보며 구축에 필요한 요소 중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장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로 먼저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체계화를 위한 개요를 다섯 가지 논지로 설명하고 노래자료의 선정 과정과 그 예시에 대해 설명한다. 노래자료의 선정 과정은 앞서 3장에서 논의한 선정 요소의 종합을 바탕으로 1차 자료 선별-등급별 분류 및 분석-년도 및 월별 정리 순으로 제시하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노래자료 예시를 제시한다. 이후 노래자료 아카이브 아카이빙의 기본 절차를 설명하고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제 아카이브의 청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에 대한 예상 결과물을 제시한다.

II. 아카이브와 노래 활용 교육의 이해

1. 아카이브의 이해

이 연구는 교육용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의 개념과 형태별, 성격별, 매체별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아카이브 구축 설계의 기본이며, 추후 구축할 아카이브에 어떠한 형태의 아카이브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사

문자 등장 이전에는 구어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지식을 보존하였다. 그러나 구어와 기억에 의한 정보의 전달, 보존은 언어의 휘발성과 내용의 변질, 거리상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곧 문자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문자의 역사는 곧 기록의 역사이다. 인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후세까지 전달하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고, 이는 곧 기록물의 집합체인 기록관 즉 아카이브의 역사와 직결되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서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고 남겨진 지식을 통해 정보를 복원, 참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란 지속적 가치 때문에 단체나 조직들이 사용하지 않게 된 “비현용기록들⁵⁾” 또는 그것들을 보존한 기록소를 뜻한다. 보존 기록 또는 보존 자료에는 종이 서류, 필름, 사진, 소리나 영상 기록 테이프 등을 모두 포함한다.⁶⁾

초기의 기록들은 국가에 의한 공공기록으로 왕궁의 토지 및 도시에 관한 행정 기록, 왕의 공적 및 사적 행사 등의 왕궁 기록과 세금기록, 급료지급증서, 재산목록, 군대의 식량 배급량 목록, 상업과 농업 보고서 등 국가의 업무 관련 공문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기록물에 내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과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5) 비현용기록은 관련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어 업무 활용성이 완전히 없어졌으나 역사적·정보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존해야하는 보존기록(aechnives)을 말한다.

6) 강명숙 역(Elizabeth Yakel), 『아카이브 만들기』, 도서출판 진리탐구(주), 2003, p.10

기록관, 기록장소의 시초를 특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원전 2112~2004년경 수메르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기록을 전용 상자에 수납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고 하며, 아테네의 경우 아에로파고(Aeropago)라는 기록관이 있었으며 노모푸라케스(Nomofulakes)라는 7명의 감독관이 있었다고 한다.⁷⁾

기록 매체는 석판, 점토판, 파피루스부터 시작하여 제지술에 의한 종이, 카메라에 의한 사진, 전자 기술 발달에 의한 테이프, 디스켓, CD, USB, 인터넷 발달에 의한 웹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기록물의 생산은 필사에서부터 활자 인쇄, 기계 인쇄, 데이터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아날로그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던 아카이브는 주로 정부, 대학, 기관에 의해 설립·운영되었으나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매체 발전에 의한 기록물의 데이터화와 인터넷의 보급 및 상용화로 웹 아카이브, 다시 말해 디지털 아카이브가 등장하면서 설립과 운영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기록물의 보존은 점차 전자매체로 전환하여 데이터로 보존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정책이 1990년 미국 의회 법안을 통과하면서 미국 역사 관련 디지털 장서개발을 위한 ‘American Memory’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에 국립디지털도서관프로그램(Library of congress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 NDLP)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문화와 관련된 희귀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⁸⁾

유럽의 경우는 2003년부터 IIPC(the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라는 국제적 웹 아카이브를 설립하여 호주 국립도서관 · 캐나다 국립도서관 · 덴마크 국립도서관 · 핀란드 국립도서관 등 12개의 파트너를 구성했다.⁹⁾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 자료 및 전국 도서관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국가 아카이브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05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발표하였다.¹⁰⁾ 이후로 2009년 5월에 완공하여 온라인 서비스인

7)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2008(3판 2013), p. 44

8) 장윤금, 노동조, 광승진, 「국립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문헌 및 사례고찰」 vol.3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8, p.102

9) 한국기록관리학회 편저, 『전자기록물의 이해』, 한국기록관리학회, 2009, p. 305

디브리리 포털(www.dibrary.net)을 제공하였는데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통합된 상태이다. 이렇듯 아카이브는 점차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록물의 속성에 있다. 이용 가능성이란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상태”¹¹⁾를 말하는데 현재 웹 아카이브 구축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용 가능성, 즉 접근성이 높은 아카이빙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모 방지와 진품 자체의 안정적인 보관이 주력인 현실 세계의 아카이브보다 사물의 디지털 재현에 바탕을 두고 문서,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원본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활용도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점차 증가 추세¹²⁾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중 백업을 위해 아날로그 저장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아카이브의 형태는 차츰 디지털 형태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2) 아카이브의 분류와 사례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형태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기록하는 저장매체에 따라 그 분류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특성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는 기록물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른 분류로 보존형 아카이브, 전시형 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로 나눌 수 있다.

10) 노동조, 광승진, 장윤금, 「국립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문헌 및 사례고찰」 vol.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8, p.269

11) 국가기술표준원, KS X ISO 15489-1, 국가기술표준원, 2007, P. 7

12) 백옥인, 『디지털 데이터·정보·지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그림 2] 보존형 아카이브 :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보존서고

보존형 아카이브는 중요·기밀 자료들의 보존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외부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열람에도 권한을 두어 관리한다. 국가기관, 공·사기업의 내부 아카이브가 이에 해당하며 사례로는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¹³⁾를 들 수 있다.

1969년에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는 당시 국가 기록에 대한 관리, 폐기문서의 재생과 활용의 문제로 설립되었는데, 1984년까지 제한적 아카이브로 기능을 수행하다 2000년 4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외 주요 기록의 수집·서비스, 기록 콘텐츠 구축, 대통령기록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⁴⁾ 과거의 경우 내부 아카이브로 열람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보존형 아카이브인 보존서고 등의 형태와 전시형 아카이브인 기록전시관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1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원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진의 구도나 화질은 떨어지는 편이나 보존형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 광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도서출판 선인, 2016, p.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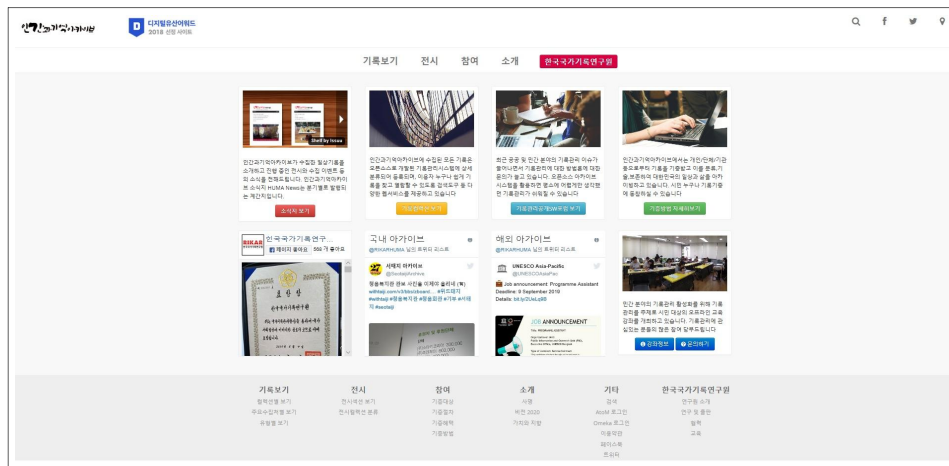
[그림 3] 전시형 아카이브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형 아카이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카이브로 거의 모든 아카이브의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공·사기업이지만 다양한 이들의 접근을 목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나 문화·예술 분야의 아카이브가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¹⁵⁾을 들 수 있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에 개설된 국립극장의 산하기관으로 공연예술 자료의 보존, 전승, 전시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진, 전시 영상 및 키오스크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외에도 연극, 창극, 판소리, 무용, 국악 관현악, 발레, 오페라, 교향악 공연 약 17만여 점을 영상, 포스터, 사진, 음향으로 제공하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¹⁶⁾

15) 국립극장 공연예술 박물관(<https://ntok.go.kr/kr/Museum/Main/Index>)

16) 최석현,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의 필요성 고찰-아카이브 전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3, p. 44



[그림 4] 참여형 아카이브 :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는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웹 아카이브가 아카이빙의 범위를 기존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함에 따라 생겨났다. 이 아카이브는 공동체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속 인원들이 자신들의 자료와 이야기를 덧붙여 하나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형태를 지니며, 그에 대한 사례로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¹⁷⁾를 들 수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과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2013에 설립한 아카이브로 한국 사회의 사회상과 역사성을 새롭게 포착하기 위해 일상의 기억과 기록을 발굴, 수집하는 아카이브이다.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일상 아카이빙, 개인 기록물, 일기수집 등 다양한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¹⁸⁾

참여형 아카이브와 전시형 아카이브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보존형 아카이브에 반해 전시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아카이브 콘텐츠 구성이 기획자들에 의해 수집·제공되느냐 기획자와 참여자들에 의해 수집·제공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모든 콘텐츠의 수집과 관리, 제공을 기획자 측에서 담당해야 하며 콘텐츠 이용자들은 기획자들에 의해 설계된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기획자가 콘텐츠 수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자들과

17)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http://hmarchives.org/>)

18) 임진희 외 5명,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pp. 12~15.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나지만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아카이브 구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축하려는 아카이브의 콘텐츠가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른 문제이다. 아카이브의 형태는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정해질 것이다. 예컨대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분야는 전시형을 가볍고 다양한 정보나 보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참여형을 선택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자료의 유지·보존이 목적이려면 보존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성격에 따른 분류

성격에 따른 분류는 기록물의 성격이 공공 영역에 있느냐 민간 영역에 있느냐에 따른 분류로 공공 영역에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 아카이브를 비롯한 의회·법원, 지방 아카이브를 예로 들 수 있다. 민간 영역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수집물에 대한 아카이브가 이에 속하는데, 민간 영역의 아카이브지만 ‘공공성’을 띠는 아카이브와 온전히 ‘민간성’만을 띠는 아카이브의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른 분류와 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하 민주화운동사료관)은 2001년 말 설립된 아카이브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영역이지만 공공성을 띠는 아카이브’이다. 이 아카이브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기관이며 민주화운동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아카이브로 혼동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학에서 나누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기준은 주체기관이나 관리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형태, 즉 레코드(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기록물)인가 메뉴스크립트(수집기록물)인가에 따라 나뉘므로 민주화운동사료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이지만 메뉴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다시 말해 ‘민간 영역’을 다루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태지 아카이브’는 서태지와 그의 팬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2012년 3월에 만들어진 온전한 민간 영역의 아카이브다. 비디오(TV, 동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책, 문서, 웹 문서, 사진, 디지털 자료 등의 미디어 자료, 팬

사이트, 팬덤 활동 등의 팬덤 자료 그 외의 공식자료의 세 분류로 나누어 수집, 제공하며 온전한 사적 영역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3) 저장매체에 따른 분류

저장매체에 따른 분류는 크게 아날로그 방식이나 디지털 및 웹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종이 기록, 사진, 영화필름, 테이프 등의 자료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로 기존의 수많은 아카이브가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 방식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오디오, 이미지 등 디지털 저장방식을 통한 자료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로 기존의 아카이브들은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디지털 변환작업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웹 방식은 인터넷 웹 페이지를 활용한 아카이브로 오늘날 생기는 많은 아카이브가 이에 해당한다.

사실 이들 저장매체에 따른 분류는 명확히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이중 백업을 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된다. 즉 아날로그 아카이브의 경우는 노화에 다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매체로 변환하여 저장하기도 하고, 웹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여 보관하기도 하는 것이다.

3)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시·공간적 제약에 따라 기존의 아카이브는 활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모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활용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매체가 발전하고 기존의 기록물들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변환과 웹 아카이빙 구축에까지 이르자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접근의 용이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각기 분야의 아카이브 자료 활용을 불러왔고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적 활용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국립 기록보관소에서 운영하는 교사용 자료(Educator Resources) 서비스, 영국의 국립 기록보관소에서 운영하는 교육(Education) 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학생 및 교사)를 들 수 있는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웹 아카이브가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적 활용은 기존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를 열람하는 식의 보조적 자료 활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업 활용 또한 교수자에 재량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는 등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용 아카이브에 대한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 교육학 분야는 사료(史料) 아카이브를 연계한 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역사교육에서는 사료 아카이브 활용이 교과 위주의 교육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국어과 교육에서도 판소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에 활용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서 아카이브의 활용은 ICT 교육과 맞물려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아카이브의 개발과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활용 교육 방법의 연구가 지속 및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래 활용 교육의 이해

노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사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오래된 방법 중 하나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구전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래의 역사는 말의 역사와 비슷하다 할 수 있으며, 그 활용 또한 다양하여 초기 토속신앙의 주술가나 현대 종교의 성가(聖歌)처럼 주술적 힘이나 종교적 설파에 활용되기도 하고, 노동요처럼 스트레스의 완화와 풍작을 기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서는 한 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언어를 전파하는 데에도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다중지능 이론자들에 따르면 언어는 언어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음악 이론에 가까운 면이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구어를 발화하거나 듣고 의미를 판별하는 데 있어 리듬, 음조, 음량, 음의 고저와 같은 음악적 요소들로 차이를 파악하기 때문이다.¹⁹⁾ 다시 말해 구어가 음의 높낮이, 장단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노래는 담고 있는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동일한 요소를 더욱 강화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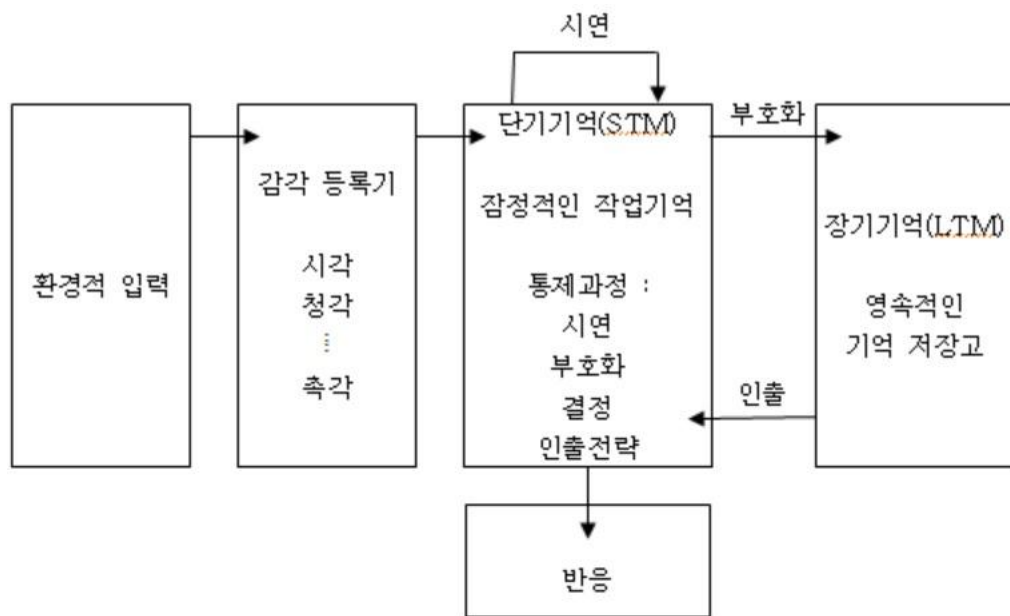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과 음악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게 두 가지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교수법과 학습 활동에 따라 공간 지능, 신체/운동 지능, 대인 관계 지능 등 다양한 지능들을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래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기존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의 확장과 전이를 통해 언어 습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지능 이론 외에도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이 있다. 앳킨스-쉬프린의 기억모형, 로자노프의 암시적 교수법이 바로 그것이다.

19) 전병만 외 4명, 『언어 교육의 접근방법과 교수법』, 도서출판 케임브리지, 2017, p. 271.

1) 앳킨스-쉬프린의 기억모형

인지심리학에서 학습은 ‘학습 요소로 선정된 정보나 지식을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 또는 인지하고 판별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진 정보·지식이 소실되지 않게 보존하는 작업’을 말한다. 풀어보자면 학(學)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주어진 지식·정보를 이해하고 판별하여 최종지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습(習)은 반복적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 즉 체득(體得)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앳킨스와 쉬프린의 기억모형은 이러한 학습의 원리를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5] Atkinson & Shiffrin 기억모형(1971)

앳킨스와 쉬프린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주어진 자극 정보에 대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으로 일차적인 정보를 얻는다. 이를 인식(認識)의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극 정보는 저장성이 수분의 1초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후 자극이 추가로 주어지지 않으면 소실되며 자극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면 감각 정보를 시각, 청각, 의미부호로 전환하여 단기 기억으로 변환되게 된다.

기억의 첫 단계이자 인지(認知) 단계라 볼 수 있는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과의 연계를 통해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감각 등록기와 마찬가지로 단기 기

억 역시 정보의 저장 시간이 20~30초로 짧기 때문에 그사이에 정보를 판별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장기기억의 판단에 따라 감각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남겨 소멸시키거나 장기기억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장기기억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전략이 바로 암송/시연, 심상화 등이다.

암송/시연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단기 기억정보를 소리 내어 되뇌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때의 암송은 다양한 부호체계와 연계되었을 때 더욱 효율적이므로 상징(문자) 부호 외에 청각부호나 시각부호를 연계하였을 때 전환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징부호와 청각부호, 시각부호를 동시에 활용하는 ‘노래를 활용한 교육’은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다중지능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다시 말해, 노래라는 암송/시연을 통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음악적 지능과 언어적 지능을 비롯한 다중 지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로자노프의 암시적 교수법

앳킨스-취프린의 기억모형이 노래 활용 교육을 ‘가창이라는 행위를 통해 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암송/시연하는 명시적 학습 방법’임을 제시했다면, 게오르기 로자노프(Georgi Lozanov)의 암시적 교수법은 ‘노래가 있는 교실이라는 무의식적이고 비언어적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임을 알려준다.

암시적 교수법에서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학습자를 수준에 맞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배치하여 마치 학습자가 다른 언어를 활용하는 사회에 부담 없이 노출되어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암시 교수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실의 장식, 가구의 배치, 교실의 배열, 음악의 사용, 교사의 권위적 행동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음악은 암시 교수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억양과 리듬을 음악적 배경에 조화시키는데 이것은 단조로운 반복 연습의 지루함을 피하여 언어자료를 극대화하고, 감정을 느끼며 의

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며 편안한 태도를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²⁰⁾

로자노프에 따르면 암시적 교수법이란 “어휘를 기억하게 하고 말하는 습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가 언어를 습득했던 사회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언어 습득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음악적 요소는 암시적 교수법에서 매우 중요한 대화의 ‘극적 읽기(Dramatic reading)²¹⁾’에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학습이 장시간에 걸쳐 유지되도록 지속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활용하는 노래나 음악은 리듬감과 패턴이 있는 음악으로 학습 자료는 해당 곡의 리듬, 패턴에 맞춰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느린 움직임(분당 60박자)의 4분의 4박자인 바로크 협주곡을 활용한 경우 첫 네 박자는 침묵을 나머지 네 박자 동안에는 교사가 자료로 선택한 대화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암시적 교수법이 과학적 토대 아래 명확한 하나의 교수법으로써 의의가 있는냐는 일각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충분히 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로자노프가 활용한 노래(음악)를 활용한 교육적 접근은 오늘날 실제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김달수(1998)는 팝송이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수업의 권태감을 해소하고 학습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는 것²²⁾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김미숙(2007)은 팝송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노래 텍스트 읽기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 노래에 대한 감상평 작성을 통한 쓰기 능력 향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²³⁾

그 외에도 팝송을 활용한 영어교육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노문희(2018)는 게임과 팝송을 접목해 수업에 적용한 결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팝송 수업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²⁴⁾고 밝혔고, 박세미(2017)는 팝송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 뒤 그것을

20) 위의 책, pp. 368~372.

21) 극적 읽기는 언어의 시각화를 촉진하며, 공감각을 활용한 암기에 도움을 준다.

22) 김달수, 「Pop song을 이용한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p.66~67.

23) 김미숙, 「팝송을 활용한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 64

UCC로 제작하여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과 흥미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팝송을 제외한 경우에도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다양하여 김진옥(2012)의 경우 일본 노래 및 동요를 통해 일본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²⁵⁾고 하였고, 이진철(2018)의 경우 샹송을 통해 프랑스어의 어휘, 문법 나아가 문화와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²⁶⁾ 하였다.

이처럼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 형태와 반복되는 언어 구조를 암송/시연 등의 명시적 방법을 통해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자, 정서적 측면에서 음악이라는 암시적 배경 상황을 통해 학습자를 편안하게 만들고 흥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노래는 멜로디, 음성,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교육의 동시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래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산물이며 장르에 따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므로 ‘살아 있는 언어’로서 효율적인 교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위의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노래를 교육에 활용할 여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24) 노문희, 「게임 기반 팝송 수업이 초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학습 태도 및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2018, pp. 83~84

25) 김진옥, 「고등학교 일본어 수업에서의 노래활용학습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67

26) 이진철, 「샹송으로 배우는 프랑스어-동요를 활용한 일반계 고등학교 프랑스어 1 수업 모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p. 66

Ⅲ. 노래 교육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전제

1.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검토

1)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분석의 필요성

앞서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검토는 다룬 바 있으나 노래 선정에 따른 연구사는 차후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노래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정 방법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차후 아카이브 구축 시 어떠한 프로세스로 노래를 선정하고, 어떠한 절차로 노래를 제공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노래를 검색하게 하느냐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 선정의 연구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동안 언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노래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랩이라는 장르는 궁셀(1999)이 초창기 한국어 교육에 노래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제시했을 때에도 존재했으나 그 당시 궁셀이 제시한 기준 중 하나가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장르였다.

그러나 이후 랩이라는 장르도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연구들이 나오게 시작하고 이인혁(2017)에 들어서는 ‘랩의 경우 가사를 쓰고 읽고 이상한 단어를 체크하여 올바른 단어로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²⁷⁾는 내용처럼 랩 또한 한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한 노래 장르로 포함되게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정의 요소가 변화하고 대상이 되는 노래 또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래 선정 연구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의 수요 분석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노래를 활용한 언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하

27) 이인혁,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p.19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자의 흥미’인데, 노래 선정 방법 연구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러한 학습자의 흥미가 어떤 식으로 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대를 아울러 학습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노래는 ‘최신 가요’에 속하지만, 과거의 경우 한류의 중심이 노래보다는 드라마에 있었으므로 해외로 수출된 드라마 OST가 선정 1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아이돌과 아이돌의 노래가 한류에 중심에서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심 계층인 유학생들의 수요가 아이돌 노래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노래자료 선정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연구검토를 재검토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노래자료의 시대적 반영과 한국어 교육 대상자층의 수요 변화를 추론하고, 그를 통해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기초 자료를 만들 필터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설정, 카테고리 분류의 기본 원리를 구축하여 검색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는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시대별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 분석

곽셀(1999)의 연구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의 연구들은 곽셀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되어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곽셀의 노래자료 선정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별로 추가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후 연구사 분석을 종합하여 추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노래자료 선정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곽셀은 한국어 초급, 중급 교육 과정의 터키 학생들을 위한 노래로 동요나 민요, 가곡, 건전한 내용의 대중가요 활용이 용이함을 밝히며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실제로 즐겨 부르고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 한국의 자연미를 담고 있어 유용하다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들이 한국어 학습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래

노래 가사에 실린 단어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노래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

노래 가사가 간단하고 명료하면 좋다. 노래를 통한 언어 교육은 무엇보다도 간결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 학생들에게 암시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노래여야 한다. 교사가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노래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학급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노래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노래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곡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수업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통속적인 노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심상을 담은 노래

한국인의 정서가 충분히 담겨 있는 노래가 좋을 것이다. 한국의 자연미, 한국인의 서정적인 사랑 방식, 한의 정서, 한국의 역사적 소재 등을 다루는 노래가 그러하겠다.

(5)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과 맞는 노래

가사를 이해할 때 필요한 어휘적, 문법적 사항들이 학생들의 한국어 지식과 상응하는 것이 좋다. 가사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우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 조건들을 종합해보자면 픽셀은 한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한 노래자료의 조건으로 교수 자료로서의 용이함, 학습 자료로써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대한 충족 여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심상 전달 가능성 유무 등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방식의 선정 방법을 제외하고 픽셀의 연구를 토대로 유의미한 보완 및 수정이 이뤄진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 초기 연구의 선정 방법(2001~2009)

초기 연구의 선정 방법들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픽셀의 선정 기준을 보완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경지(2001)와 양윤희(2005), 박재희(2008)와 양지연(2009)의 선정 방법들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1) 학습 대상 확대를 위한 리듬과 선율 확장
- (2) 교육 요건 확립을 위한 노래 선정 요소의 명확화(어휘나 구문 반복 여부, 교육내용과의 관련성 등)
- (3) 교수자 재량에 따른 임의의 곡 추가

위 특징 중 (1)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로 김경지(2001)는 픽셀의 선정 방법인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에서 나아가 ‘선율이 아름답고 따라 부르기 좋은 신나는 노래’와 ‘가사에 나오는 어휘와 구문이 반복되는 노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는 교육 대상을 초·중급에서 중·고급으로 확대한 것으로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 높고 한국어 노래에 익숙해진 대상자들에게는 평이한 가사와 리듬을 통한 수업보다 빠르고 어려운 노래를 통한 수업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픽셀 또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것이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데, 김경지의 의견은 난이도적 측면에서 그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실제에서도 ‘어휘, 구문 반복의 중요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다뤄졌던 픽셀의 초기 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교육적 요건이 필요한지 밝힌 사례라 볼 수 있다.

양윤희(2005)의 경우 (2) 항목에 해당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노래가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논의와 관련하여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습자 중심의 선정 방법에서 교수자의 측면을 고려한 선정 방법이 추가된 것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노래를 활용할 시 ‘수업 진도’와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노래를 선정했을 시 교수자는 학습 진

도와는 별개로 노래 활용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흥미 유발 측면에서 그치게 되거나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습자의 측면에서도 수업 시간이 늘어나 지루하거나 형식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있는 노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 자료 선정 항목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박재희(2008) 역시 (2)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로 궁셀의 노래자료 선정 방법 중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래라는 기준에 대해 ‘구어나 생략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도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노래’라는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힙합이나 랩 같은 장르나 오늘날의 대중가요는 대중에 대한 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어나 흉내 표현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완 안은 이후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사전을 활용하거나 활용치 않더라도 교수자의 재량에 의해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노래’라는 항목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선정 항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양지연(2009)의 경우 위 항목 중 (3)에 해당하며 ‘대중적으로 오래 불리는 노래’를 선정 요건에 두었다. 해당 항목은 아무리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불리지 않는다면 오늘날 언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불린 대중가요, 소위 명곡들은 대중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에 활용된 어휘나 문법들 또한 명료하다. 물론 어휘나 문법에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음률이 좋고 가사의 구성 및 내용이 뛰어나 활용도가 높다.

그 외에도 노래자료를 선정하면서 모든 노래를 분석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오랫동안 불린 노래를 기본으로 하여 학습과 관련된 요소를 찾는다면 아무 기준 없이 노래자료를 찾는 것보다 유용할 것이다.

나. 중기 연구 이후의 선정 방법(2011~2019)

중기 연구 이후부터는 연구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새로운 선정 방법들이 추가된다. 류희정의 경우 노래의 음률이나 난이도적 측면과 관련이 없는 ‘문화 이해’라는 선정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김덕경의 경우 가창자의 가사 전달력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 기존 선정 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성이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1) 독자적인 틀을 제시하여 선정 방법 확대
- (2) 기존 선정 방법의 종합 및 보완
- (3) 노래 텍스트에서 나아간 가창자의 가사전달력 검증
- (4) 실제 수업을 고려한 노래의 길이에 대한 논의

(1)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류희정(2011)은 픽셀이 주장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심상’이라는 선정 기준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했다. 류희정에 따르면 언어 습득은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노래를 활용하고 그 자료를 선정한다면 기준은 멜로디, 리듬,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류희정은 한국 문화의 범주를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자연과 산업기술,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의 7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각각의 노래 예시를 들어 선정 방법에서 문화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류희정의 선정 방법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용한 언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성진(2016)은 (2)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존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사전활용 가능성, 학습자의 흥미 반영,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건전한 가사, 쉬운 리듬, 어휘 반복, 학습자의 수준 고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윤성진의 연구는 노래자료 선정에 대한 분류의 기초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가로 제시한 음의 고저에서 오는 ‘노래의 난이도적 측면’도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라 생각한다.

(3) 항목에 해당하는 김덕경(2017)은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노래자료 선정 방법 중 ‘가사 전달력’에 주목하였다. 이는 가사와 리듬, 멜로디 외에도 음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노래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멜로디가 좋고 노래 텍스트가 어휘·문법 교육에 효과적이더라도 가창자가 가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노래를 듣고 불러야 하는 노래 활용 교육의 특성상 교육적 활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쓰기, 읽기 교육의 측면보다는 말하기, 듣기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는 만큼 가창자의 가사전달력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선정 요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특히나 리듬과 가사 진행이 빨라 배우기 어려운 편에 속하는 한국어 랩 같은 경우에도 가사를 흘리는 가수와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수가 나뉘므로 ‘가사 전달력이 좋은 가수’ 항목에 속하는 래퍼는 고급 대상자들을 위한 노래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사 전달력은 기본적으로 노래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달력과 표현력을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노래자료 선정 시에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항목에 해당하는 김학현은 두 가지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의 ‘신조어를 사용한 노래’와 ‘길이가 적당한 노래’이다. 신조어를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고, 이 연구에서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소개의 측면이나 한국어 교육 고급반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변형적 측면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노래 길이의 문제는 한 수업에서 다루기 적당한 노래 길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3분 내지 4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노래에 따라 5분을 넘어가게 될 시 50분 내외의 수업에서 익히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나 노래를 익히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가창에 있어 여러 학습자의 발음 지도가 필요하므로 노래 길이의 문제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노래 선정 요소 분석의 종합

곽셀(1999)의 선정기준부터 김학현(2019)의 선정기준까지, 중첩되거나 이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연구를 제외하고 새로운 교육적 틀을 제시했거나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논의를 분석·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리듬이나 음정이 난해하지 않고 반복적 패턴을 가지는 노래
- (2) 한 수업에서 다루기 적당한 길이의 대중적인 노래
- (3) 난이도적 측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원활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 (4) 사전 활용이 가능하고 어휘, 문법 구문 등의 반복으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노래
- (5) 구어나 생략, 흉내표현, 신조어 등이 들어가 있더라도 교수자의 재량에 의해 활용이 가능한 노래
- (6) 학습자의 흥미를 충족시키며 학습 수준에 적합한 노래
- (7)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심상을 담은 노래

이들은 차후 교육용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시 노래자료 선정의 기본 요건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요소를 전부 사람이 판단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업무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명확한 결괏값을 가져 프로그램이 판단 및 분배할 수 있는 요소를 1차 분석 요소로 설정하고, 결괏값이 불명확하여 사람²⁸⁾이 판단 및 분배해야 할 요소를 2차 분석 요소로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분류한 노래자료 선정 기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이 판단 및 분배할 수 있는 1차 분석 요소
(1) 리듬이나 음정이 난해하지 않고 반복적 패턴을 가지는 노래
(2) 한 수업에서 다루기 적당한 길이의 대중적인 노래
(4) 사전 활용이 가능하고 어휘, 문법 등의 반복으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노래

28)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아카이브 교육용 노래자료를 아카이브에 올리는 '관리자'를 지칭한다.

사람이 판단 및 분배해야 할 2차 분석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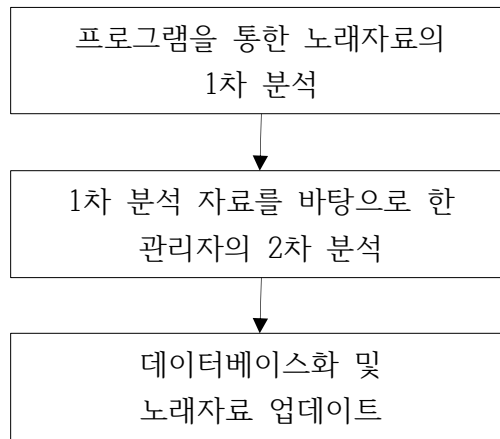
- (3) 난이도적 측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원활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 (5) 구어나 생략, 흥내표현, 신조어 등이 들어가더라도 교수자의 재량에 의해 활용이 가능한 노래
- (6) 학습자의 흥미를 충족시키며 학습 수준에 적합한 노래
- (7)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심상을 담은 노래

<표 1> 노래자료 선정 요소와 아카이브 구현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요소 분류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기본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어휘, 문법, 구문 등의 키워드를 지정해놓으면 가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원하는 결과값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히트곡 검색을 통해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노래들의 차트 순위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가사전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가수들의 기초값을 입력해둔다면 해당 가수들의 노래를 찾아낼 수도 있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노래의 시간을 약 3~4분으로 잡는다면 해당 노래를 추려내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은 지정된 입력에 대한 결과값만을 제공하는 1차원적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기초 자료들을 선 분류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노래자료에 대해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말 그대로 1차 작업으로 추후 관리자가 프로그램이 오관한 내용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 후 자료 업로드를 진행해야 한다.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요소로는 학습자의 흥미나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고려, 한국인의 문화나 심상에 대한 파악 등이 있다. 이들 요소는 범위나 입력값이 명확하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요소들이다. 물론 리듬이나 패턴, 음의 고저에서 오는 노래의 난이도 추정 등과 같은 부분은 오늘날 AI의 발달로 판별이 가능해진 요소들이나 현시점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차 분석 요소는 사람이 판단하며 그 중 교육적 활용도가 뛰어난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래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원리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원리

예를 들어 가사 전달력이 뛰어난 가창자라는 요소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노래 길이는 3분~5분 사이, 특정 어휘, 문법, 구문 등의 반복, 인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노래 등을 지정한다면 프로그램은 음원사이트의 인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악동 뮤지션의 음원을 찾고 제공되는 노래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지정된 어휘, 문법, 구문이 반복되는지를 판별한다. 이렇게 선정된 노래자료의 리스트는 관리자에게 노출되고 관리자는 프로그램이 판단한 1차 분석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2차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관리자는 교육적 활용에 용이하다 판단되는 노래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교육용 노래자료로 제작한다.

2.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설문조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노래자료의 활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노래자료를 활용한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노래자료를 제공해주는 아카이브가 있다면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질문들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노래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현직 교사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한편, 연구자가 생각지 못한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설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설문’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 노래자료 선정에 대한 기준, 한국어 교육 시 노래자료 활용의 어려움, 노래자료를 구할 경우 그 출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설문’은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필요성 및 수요 조사, 구축 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할 만한 요소·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 강사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에 이루어졌다. 기본 조사 결과 응답자의 나이대는 30대(27%), 40대(53%), 기타(20%)로 40대가 과반을 이루며, 한국어 교수 경력은 1년 이하(10%), 2~5년(27%), 6~9년(13%), 10년 이상(50%)으로 10년 이상인 교사가 많았다. 소속기관은 대학전부 대학부설기관 소속이나 일부는 다문화교육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 결과 중 주관식 답변의 경우 비슷하거나 같은 맥락을 가지는 답변은 대표적인 답변으로 수렴하였다.

1)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설문

설문 조사 항목

1. 한국어 노래(이하 노래)를 활용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 만족스러웠습니까?
3. 노래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4. 노래자료를 수업에서 활용한 후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요구하거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 4-1. 노래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이 다음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자료를 활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6. 한국어 노래자료 활용에 대한 정보를 동료 또는 주변인들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7.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 노래자료 정보를 얻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질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진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73%가 수업에서 노래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번 질문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사 만족도 조사로 매우 만족했다(14%), 만족했다(55%)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노래를 활용한 수업이 대체로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보통이다(27%)와 만족하지 않았다(4%)에서 나타났는데, 수업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문법 관련 내용 위주로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는 ‘학습자의 흥미’, ‘학습자의 수준’,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수업자료 제작의 편의성’의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답변 사항이 겹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답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항목(81%)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 결과 정규화된 교육과정이 있는 기관에서의 수업은 진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업내용과의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4번과 4-1번 질문은 노래자료를 활용한 수업 후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해당 질문을 통해 노래 활용 수업 시 학습자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요소를 지속해서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설문 결과 피드백을 받아보았거나 요구한 교사는 전체의 33%로 대다수는 피드백을 받지 못했지만 4-1의 결과를 통해 피드백이 다음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에는 필요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었다. 특히 피드백을 받았거나 요구한 교사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는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피드백을 받지 않은 교사 또한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노래자료를 활용한 수업에 교수자의 재량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피드백 또한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번 질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노래 활용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 검색의 어려움’,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 ‘학습자 흥미 분석의 어려움’의 세 항목과 교수자 개별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기타’ 항목을 두어 설문한 결과,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이 68%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고 학습자 흥미 분석의 어려움이 23%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노래를 활용한 교수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들이 활용을 꺼릴 수 있으며, 반대로 교육 자료화된 노래자료가 있다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더불어 학습자의 흥미 분석 또한 학습자의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이를 손쉽게 확인할 방법만 있다면 학습자료 제작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번과 7번 질문은 교수자별 노래자료 취득에 대한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교수연계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다. 6번 질문의 답변 결과는 예(37%), 아니오(63%)로 교수연계는 미흡한 실정인데, 개별 인터뷰에 따르면 노래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교수 재량에 큰 영향을 받고 교사별로 교수 방식 또한 달라 원활한 연계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7번 질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동료 또는 주변인들에게 노래자료 활용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두 그룹의 대다수가 ‘인터넷 검색(72%)’을 노래자료를 얻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답한 점이다.²⁹⁾

이러한 답변이 비대면으로 인한 편의성 때문인지 개인 분석의 편의성 때문인지 자료 검색 자체에서 오는 편의성 때문인지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인터넷을 통한 노래자료 검색이 타 매체보다 편리하다는 것은 일부분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설문

설문 조사 항목

8.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노래자료 검색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노래자료 검색시스템이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 노래자료 검색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수업에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1. 노래자료 검색시스템 구축 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8번 질문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아카이브 구축 수요조사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매우 필요하다(10%), 필요하다(63%), 보통이다(27%)는 답변이 있었으며,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교사가 73%로 과반수의 교사가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고 조금 그렇다는 답변이 43%,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10%로 대부분의 교사가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하였다. 조금 그렇지 않다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받지 못했다.

10번 질문에 대해 모든 교사가 예(100%)라고 답변한 점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은 기존 노래자료의 부족,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이라는 교사 부담을 낮추고,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그

29) 나머지 답변 항목은 동료 교사(21%), 학습자 면담(4%), 개인분석(3%)이 있었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1번 질문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질문으로 개방형 답변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교육 카테고리별 검색 기능(44%)’, ‘어휘, 문법별 검색 기능(28%)’, ‘학습자 수준별 검색 기능(16%)’, ‘교육 주제별 검색 기능(6%)’, ‘전문 학술자료와의 연계 기능(6%)’ 등의 여러 답변이 나왔으나, 대부분 교육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을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 답하였다.

이는 아카이브 활용 시 교사가 적용코자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노래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교육주제별, 학습자 수준별, 어휘, 문법별 검색 기능, 전문 학술자료와의 연계기능 또한 필요한 기능임을 알 수 있다.

그 외로 노래자료 검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교사들의 추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노래자료에 음원, 영상 자료가 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 (2) 학습자의 흥미가 변하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구축되어 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도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상기 의견 외에도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의향이 있다, 교수자 및 학습자들에게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제시해 주면 활용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3) 설문 종합 및 아카이브 구축의 지향점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시 반영해야 할 지향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반수의 응답자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만족도는 약 70%로 높은 편이다.

둘째, 노래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이 8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후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시 해당 노래자료는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드백을 받을 경우 다음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85%에 달하므로,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다수의 한국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자료를 활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68%)이 뽑혔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자료화 되어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노래자료는 간단한 교육화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교육 자료로 직접적 활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래자료를 얻는 방식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72%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구축될 아카이브는 교수·학습자들이 손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응답자 중 90%³⁰⁾가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수업에 활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100%로 모든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여 한국어 교수자에게 있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일곱째,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또는 기능에 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들이 나왔다. 그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교육 카테고리별 검색’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주제별, 수준별, 어휘·문법별 카테고리를 제작해야 할 것이며, 전문 학술자료와의 연계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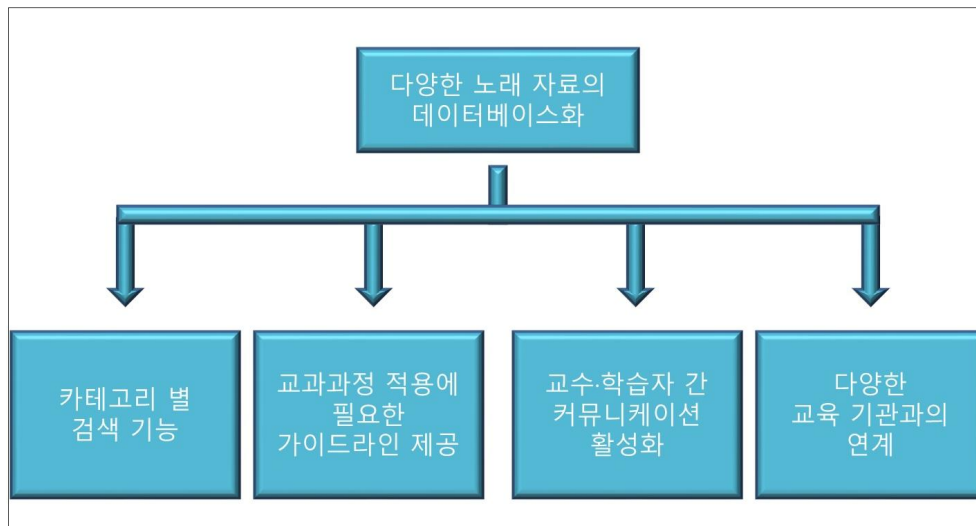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과 관련해서는 노래자료에 노래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학습자의 흥미와 노래자료 데이터양의 증가를 위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30) 매우 그렇다(47%)와 조금 그렇다(43%)를 합친 퍼센티지이다.

IV.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1.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체계화를 위한 개요

앞서 3장에서 진행한 아카이브 선정 기준에 대한 종합과 기초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실제 아카이브로서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론의 구체적 적용과 세부적인 체계 및 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 구현에 따른 가시적 체계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고안하였다.



[그림 7]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체계

다양한 노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점을 픽셀의 연구로 보면 오늘날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활용된 노래의 수는 극히 일부분이다. 물론 현장에서 활용된 노래자료들은 이보다 많을 것이나 이들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중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노래를 찾고, 다시 그 노래 중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한 노래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노래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교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교육 자료화가 일부분 수월해지나, 모른다면 교사는 일일이 노래 텍스트를 확인하여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학습자의 반응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고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가 한 수업을 진행하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과거의 자료가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노래자료를 활용하기도 힘들고 다음 학기의 학습자들을 가르치기에는 학습자들의 흥미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기에 사실상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반되는 수고보다 결과가 불확실 할 수 있는 이 교육 방법이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을 낮추어야만 한다. 제삼자가 노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거나, 교수 연계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교육 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고 또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노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이 모든 과정의 기본이 된다.

자칫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고 사장될 연구와 지도안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연구와 지도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현행 노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추가 노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아카이브구축뿐만 아니라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화 이후 진행되어야 네 가지 체계 중 먼저 ‘시대, 장르, 인기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노래자료의 접근성과 관련된 체계로 교수자가 필요로 하는 노래자료를 시대별, 장르별, 인기별로 나눈 검색 기능과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분류한 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을 말한다. 이들 분류의 필요성과 분류에 따른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대별 분류는 노래가 가지는 시대적 특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시대에 따라 노래와 노래 텍스트의 구성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데, 교수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노래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7080 노래들은 서정적인 음률에 시적인 표현이나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을 활용하여 존칭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요즘 노래들은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후렴구를 사용하여 특정 어휘를 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랩의 경우는 한국어의 문형이나 언어유희를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르별 분류는 교수자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분류에 가까우며 학습자들이 원하는 노래자료가 어떤 장르인지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분류라 볼 수 있다. 이 분류는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 있으나 류희정(2011)이 지적한 바³¹⁾와 같이 교육 대상에 따라 선호하는 노래 장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다.

인기별 분류는 3절 아카이브 구축의 청사진 및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나 간략히 설명하자면, 시대별·장르별 카테고리나 교육과정에 따른 카테고리 검색 시 해당 분류의 자료 중 가장 별점(인기도)이 높은 자료를 노출하는 분류이다. 유학생의 경우 최신 유행가를 좋아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교수자나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높은 평점을 받는 노래자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교수자는 이러한 인기별 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카테고리별 분류는 3장의 설문조사에서 ‘아카이브 구축 시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뽑혔던 노래자료의 한국어 교육과정별 카테고리 분류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노래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든 분류이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자신이 진행 중인 교육과정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노래자료를 검색하거나 그와 관련된 다른 교수자들의 노래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래자료의 교과과정 적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팁 제공’은 교육에 활용할 노래자료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노래자료를 어떤 식으로 교육 자료화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자들을 위한 체계로 아카이브는 해당 노래에 대해 간단한 교육화 가이드를 제공과 더불어 기초적인 예시 지도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1) 류희정은 다문화센터의 결혼이주여성과 대학 기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 요구 분석에서 전자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동요를 선호하고, 후자의 경우 대중가요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초임 교사·강사의 경우 노래자료를 보아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앞서 3장의 설문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자료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을 뽑았으며, 답변한 강사 중 일부는 아카이브에서 제공될 노래자료에 대해서 ‘재가공이 필요 없는’, 다시 말해 바로 적용과 사용이 가능한 교수지도안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노래 활용 교육에 익숙한 기존 교수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화 기초가이드와 초임 혹은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수자들을 위한 예시 지도안을 제공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면 더 많은 교사와 강사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노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기초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노래는 00이라는 어휘, 00의 문장구조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00 교육에 적합함” 또는 “이 가수는 가사에 대한 발음과 전달력이 우수하여 발음 교육에 적합함” 등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리자의 2차 분석에 의한 예시 지도안을 제공한다면, 많은 교수자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를 변형하여 교수자 개인의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수·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교수 간 피드백을 통해 활용했던 노래자료에 대한 교육적 활용도를 검증하고 교수 자료를 연계하는 체계 그리고 교수·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자가 들었던 또는 향후 듣고 싶은 노래자료의 피드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계의 활성화를 말한다.

기초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습자들의 피드백이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전체 의견의 85%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거나 요구한 교수자는 약 3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제약을 들고 있고 의견 중 일부는 들인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피드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내용 또한 참고할만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카이브 내에 교수자 평가, 학습

자 평가란을 제시하고 해당 평가란에서의 교수 간, 학습자 간, 교수·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수자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었는지, 노래자료가 실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향후 해당 노래자료의 수업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는 교수자 간 연계에서 나아가 교육기관과의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기관은 국립국어원과 세종어학당을 비롯한 대학 부설 어학당, 다문화교육원 등이 있고 관련 학술자료 정보기관으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의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이퍼링크를 통한 교수 자료 연계로 개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노래자료의 선행 연구 자료가 타 기관에 있다면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기관으로 연계해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한다거나 타 연구자 혹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노래자료 선정 과정 및 예시

노래자료의 선정은 앞서 3장에서 분석한 7가지 노래 선정 요소³²⁾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교적 최신곡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습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노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건의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노래로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먼저 빌보드 K-POP 차트와 멜론을 비롯한 각종 음원차트의 상위권 순위 곡을 기준으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를 선별한 후 노래자료 선정 요소에 따른 교육 자료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1차 선별된 노래자료를 급수별 어휘·문법 사항과 노래의 난이도, 주제, 내용을 고려하여 초·중·고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분류된 자료를 다시 월별, 연도별로 정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예시로 2017년에 발매한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2014년에 발매한 홍진영의 산다는 건, 2013년에 발매한 산이의 아는 사람 애기, 2014년 발매한 박효신의 야생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노래는 TOPIK의 기준이 되는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차)」에서 제시한 초급, 중급, 고급별 어휘와 문법 표현, 기능과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초급 예시 : 악동뮤지션 - 오랜 날 오랜 밤

(1) 노래 개요

해당 곡은 악동뮤지션 소속 가수 중 이찬혁의 작사와 작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앨범 설명에 따르면 이 곡은 사춘기 시절 ‘좋아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모순된 감정’을 이해해가는 노래라고 한다. 선정조건을 대부분 만족하고 TOPIK 1~2급에 해당하는 대인관계라는 주제와 감정 표현하기(희로애락 표현하기)라는 기능을 다룰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32) p.33 참조.

(2) 노래 분석

<p>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p> <p>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어도 거짓은 없었어</p> <p>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p>	<p>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던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p> <p>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p> <p>밧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한</p>
---	---

<표 2> 악동뮤지션-오랜 날 오랜 밤 노래 텍스트 중 일부

노래 전체적으로 ‘있다(초급/1급/형용사)’+‘고(초급/1급/연결어미)’와 ‘-었-(초급/1급/선어말어미)’+‘어(초급/1급/종결어미)’가 반복되고, 가사 중 오랜 날(日) 밧게 날(나를)은 동음이지만 서로 다른 뜻과 해당 뜻이 생기는 경우, 예컨대 밧게 날의 ‘날’은 인칭대명사 ‘나’에 목적격 조사 ‘ㄹ’이 붙어 만들어진 ‘나를’의 구어적 표현이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한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급수별 어휘, 문법 사항들을 토대로 분석한 ‘오랜 날 오랜 밤’의 1절 노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초급			
	1급		2급	
어휘	하나, 있다, 너, 내, 밤, 사랑, 하다, 말, 없다, 나다, 참, 조용, 잠, 오다, 그, 나쁘다, 말다, 날, 동안, 정말, 것, 말, 생각, 아직, 잘, 모르다		별, 그곳, 화, 속, 목소리, 행복, 사실, 안 되다, 기억, 지우다, 소중한다	
문법	-고, -는(를), -이, -었-, -어(요), -은, -에서(도), -지 못하다, -의, -만, -까지, -아(요), -수 없다, -도, -지만		-게, -지 말다, -주다, -래(요)	
	중급		고급	
	3급	4급	5급	6급
어휘	오랜, 이루다, 결, 그저, 추억, 밋다, 당신	머뭇거리다, 거짓, 어둠, 그대, 어찌다, 흔적		흐느끼다
문법	-어도, -던, -이라(고)	-란, -이면	-ㄴ 걸	

<표 3> 악동뮤지션-오랜 날 오랜 밤 노래 텍스트 분석

이 노래는 교육 분류상 초급인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 표현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중급인 3급과 4급의 어휘, 문법 표현이 일부 들어가 있다. 물론 예외사항으로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어휘, 문법 표현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지만 각각이 하나의 어휘, 하나의 표현에 국한되므로 사실상 초급 한국어 학습자 교육에 적합한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있다(초급/1급/형용사)’+‘고(초급/1급/연결어미)’와 ‘-었-(초급/1급/선어말어미)’+‘어(초급/1급/종결어미)’나 오랜 날(日), 밋게 날(나를)의 동음에서 발생하는 목적격 조사 교육 외에도 다양한 초급, 중급 어휘와 문법 표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노래자료는 직접 검색 외에 카테고리로는 시대순(2010-2019)에 해당하고 장르 순으로는 발라드, 교육 별 카테고리로는 초급-어휘, 문법, 상황별로는 대인관계라는 주제, 감정의 표현이라는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인기순 별로도 발매 당시 6개 음원 차트 1위를 전부 석권하여 학습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추천 학습활동

2019년 한국어 능력 시험(TOPIC)의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1~2급에 해당하는 초급의 경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평가 기준의 전제로 둔다. 특히 1급의 경우 800여 개의 기초 어휘, 2급의 경우 1,500~2,000개의 어휘를 익혀야 하므로 초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 노래에서는 초급에 해당하는 어휘 37개와 문법 19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초 어휘 및 문법을 익히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위 노래와 같이 모든 노래가 초급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어휘나 문법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중급이나 고급 대상 어휘들을 초급 어휘나 문법으로 대체하여 설명하거나 최대한 이해가 가능한 영역까지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해야 한다. 예컨대 위 노래에서 5급 문법인 ‘-ㄴ 걸’과 6급 어휘인 ‘흐느끼다’는 초급 대상 교육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수자는 이를 ‘것(초급/1급/의존명사)’과 ‘을(초급/1급/조사)’을 합친 ‘-것을’과 ‘흐느끼다(Sob)’를 초급 대체어인 ‘울다(Cry)’로 바꾸어 교육할 수 있다. 다만 대체어에서 발생하는 문맥상의 차이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곡은 밤(夜)과 밤(粟), 날(日)과 날(나를)같이 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먼저 두 단어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후 밤(夜)을 뜻하는 팻말과 밤(粟)을 뜻하는 팻말, 날(日)을 뜻하는 팻말과 날(나를)을 뜻하는 팻말을 학습자별로 나눠주고 노래에 맞춰 학습자가 올바른 팻말을 들 수 있게 한다. 처음은 단순 반복으로 시작하나 노래의 단어와 문법 등을 익히고 전체적인 노래의 내용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단어나 어휘를 쓰는지, 또는 장-단과 같은 발음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과약할 수 있게 돕는다. 밤과 날에 대한 학습 이후에는 그와 비슷한 동음이의어에 대해 추가적으로 교수·학습한다.

2) 초급 예시 : 홍진영 - 산다는 건

(1) 노래 개요

해당 곡은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첫 미니앨범 인생 노트(Life Note)에 수록된 타이틀 곡으로 앨범 설명에 따르면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 위에 누구나 겪는 인생사를 담은 노래로, 저마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을 견디며 산다는 것을 표현’한 노래라고 한다. TOPIK 1~2급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일상생활이라는 주제와 태도 표현하기(바람·희망), 감정 표현하기(희로애락 표현하기)라는 기능을 다룰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고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2) 노래 분석

<p>산다는 건</p> <p>홍진영</p> <p>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p> <p>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p>	<p>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p> <p>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p>
--	---

<표 4> 홍진영-산다는 건 노래 텍스트 중 일부

노래 전체적으로 초급어휘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급 어휘와 문법이 조금 섞여 있다. ‘-래요(초급/2급/종결어미)’와 ‘-요(중급/3급/조사)’ ‘-(으)시-(초급/1급/선어말어미)’, ‘-었-(초급/1급/선어말어미)’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특히 ‘-거래요’라는 전달 표현과 ‘-요’의 존칭 표현이 반복되므로 한국어 높임 표현과 전달 및 설명하기 교육에 적합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트로트라는 장르 소개와 트로트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등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함께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급수별 어휘, 문법 사항들을 토대로 분석한 ‘산다는 건’의 1절 노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초급			
	1급		2급	
어휘	살다, 갓, 다, 그렇다, 힘들다, 아프다, 낯, 많다, 참, 좋다, 오늘, 어떻다, 지내다, 하나, 잔, 되다, 일, 없다, 나다, 슬프다, 말다, 어느, 비, 들다, 누구, 알다, 보다, 나, 오다		거, 수고, 뜻, 구름, 속	
문법	-는, -은, -ㄴ, -고, -도, -지만 -(으)시-, -었-, -어, -이, -세요, -에(게), -가, -아, -ㅂ니다		-래요, -게	
	중급		고급	
	3급	4급	5급	6급
어휘	한숨	걸치다		
문법	-요, -대로	-나요, -는지		

<표 5> 홍진영-산다는 건 노래 텍스트 분석

이 노래는 교육 분류상 초급인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 표현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중급인 3급과 4급의 어휘, 문법 표현이 일부 들어가 있다. 특히 일반적인 곡의 구성이 전주-코러스(후렴)로 이뤄진 것에 반하여 이 곡은 도입부와 종결부에 코러스를 추가로 배치하였는데, 그에 따라 총 네 번의 후렴이 반복되어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로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셨어요, -세요, -디 니다’ 등의 존칭 표현이 다수 반복되는 점은 한국어 높임법 교육 자료로써 활용성이 높다 할 수 있고 평이한 리듬과 선율로 구성된 점은 초급 학습자들의 교육에 용이하다 할 수 있다.

해당 노래자료는 카테고리 시대순(2010-2019)에 해당하고 장르 순으로는 트로트, 교육 별 카테고리로는 초급-어휘와 문법, 주제-대인관계, 일상생활, 기능-태도 표현하기(바람·희망), 감정 표현하기(희로애락 표현하기)에 속한다. 인기도나 인지도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부족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트로트라는 장르를 소개해주고 경험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면 손색이 없을 것이다.

(3) 추천 학습활동

위에서 언급한 바 이 곡은 초급 어휘와 문법 및 존칭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래요’를 활용한 전달 표현의 높임법 교육, ‘-셨어요’, ‘-셨네요’, ‘-셨나요’ 및 ‘-요’를 활용한 높임법 교육이 가능한데, 먼저 교수자는 비격식체, 경어체, 극존칭의 차이를 설명하고 특정 상황,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에게 놓인 상황, 대상을 구분하여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이후 쓰기 활동으로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을 진행하여 당일 학습한 높임 표현을 반복 숙달하게 하고, 교정과 추가적인 높임 표현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한국어 높임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한다.

3) 중급 예시 : 산이 - 아는 사람 얘기

(1) 노래 개요

해당 곡은 래퍼 산이가 2013년에 발매한 아는 사람 얘기 디지털 싱글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이다. 작사와 작곡, 편곡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짝사랑’을 주제로 헤어진 연인에게 ‘아는 사람 얘기’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곡은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으나 ‘랩’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리듬의 난이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TOPIC 3~4급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외모, 연애) 등의 주제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등의 기능을 다룰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2) 노래 분석

<p>아는 사람 얘기</p> <p>산이</p> <p>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p> <p>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p>	<p>예뻐 보였나 봐 그의 엄마가 어릴적 날마다 해준 말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 봐</p> <p>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음 걱정 녹아내려서</p> <p>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진 스토리 좋잖아 행복 백 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 그냥 아는 사람</p>
--	--

<표 6> 산이-아는 사람 얘기 노래 텍스트 중 일부

노래 전체적으로 초급, 중급 어휘와 문법 표현이 섞여 있고 ‘알다(초급/1급/동사)’, ‘-는(초급/1급/조사)’, ‘사람(초급/1급/명사)’, ‘얘기(초급/2급/명사)’, ‘그냥(초급/2급/부사)’, ‘-던데(중급/3급/종결어미)’, ‘-대(표현/4급/중급)가 반복된다. 특히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척 전하는 내용이므로 인용표현인 ‘-대’ 표현이 많이 나와 중급 표현을 교육하는 데 적합하고, 인용되는

내용의 주인공이 화자라는 점에서 이야기 화자를 찾는 교육에도 적합할 것이다. 급수별 어휘, 문법 사항들을 토대로 분석한 ‘아는 사람 얘기’의 1절 노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초급			
	1급		2급	
어휘	내, 알다, 사람, 하다, 며칠, 전, 사랑, 힘들다, 많다, 너, 어쩔다, 생각하다, 아(감탄사), 아니다, 그(대명사), 너무, 일(수사), 년, 만나다, 여자, 앞, 친구, 예쁘다, 보인다, 보다, 날, 말, 머리, 없다, 그(관형사), 좋다, 매일, 밤, 택시, 타다, 집, 돌아오다, 분, 더, 있다, 그렇다, 둘, 여기, 백, 배, 누구		얘기, 헤어지다, 주위, 그냥, 슬퍼하다, 넘다, 들, 자랑, 엄마, 어리다, 버리다, 정도, 데려다, 수고, 걱정, 행복, 어(감탄사)	
문법	-가, -(은)는, -와, -고, -이, -야, -를, -었-, -을, -에서, -에게(도), -아, -의, -부터, -까지, -로, -에, -고 싶다, -(어서)		-주다, -게(연결어미), -나, -마다, -ㅁ	
	중급		고급	
	3급	4급	5급	6급
어휘	그녀, 절대, 반하다, 근데	발끝, 구석, 막차, 손잡다		녹아내리다
문법	-던데(종결어미), -어도, -이라, -던(전성어미), -적, -스럽다, -잖아, -냐고	-대		-게(종결어미), -마따나

<표 7> 산이-아는 사람 얘기 노래 텍스트 분석

이 노래는 교육 분류상 초급인 1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이 다수 들어가 있으며 중복 어휘, 문법을 제외하여 적어 보이지만 다수의 2급 어휘와 문법 또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어휘, 문법 사항으로만 보면 초급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랩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발음과 가창의 단계에서 비교적 불규칙한 리듬이 등장하여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교적 원활한 언어 구사가 가능한 3급과 4급, 즉 중급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노래라 볼 수 있다.

해당 노래자료는 직접 검색 외에 카테고리로는 시대순(2010-2019)에 해당하고 장르 순으로는 힙합, 교육 별 카테고리로는 중급-어휘, 문법, 상황별로는 개인신상(외모, 연애)이라는 주제와 대인관계라는 주제,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조언 구하기), 태도 표현하기(부인하기), 감정 표현하기(고민 표현하기)라는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인기도 역시 발매 이후 음원차트 1위, 이후 약 2주간 각종 음원차트 1위 및 상위권을 유지하여 높은 인기를 보인다.

(3) 추천 학습활동

한국어 능력 시험 3~4급에 해당하는 중급 평가 기준 중 하나는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4급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둔다. 이는 중급에 해당하는 3~4급의 경우 기본적인 회화의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유창성의 단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위 노래를 활용한 중급 교육은 기본적으로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문어와 구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랩이라는 노래 장르의 특성에서 오는 발화의 유창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던데’, ‘-대’와 같은 전달 표현을 교육하는 데 적합하며 그에 따른 학습 활동 역시 내용 전달하기와 관련된 활동이 적합하다. 교수자는 하나의 큰 주제, 상황 또는 이야기를 준비한 다음 학습자를 일렬로 배치하고 각각의 학습자에게 그중 일부를 전달한다. 이후 모든 학습자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통해 노래를 듣고 1~2번 학습자, 2~3번 학습자, 3~4번 학습자

순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더해 최종적으로 4번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4번 학습자는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여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처음 전달했던 이야기와 학습자가 제출한 이야기의 내용을 비교하고 올바르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뒤 문어체를 통한 서면 전달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이야기의 전달 과정과 구어·문어 전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전달에 의해 바뀐 이야기를 수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고급 예시 : 박효신 - 야생화

(1) 노래 개요

이 곡은 박효신이 2010년 6집 앨범 발표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다 4년 후인 2014년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앨범 ‘야생화’에 수록된 타이틀곡으로, 앨범 소개에 따르면 추운 겨울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처럼 그간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비상하겠다는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작사와 작곡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자신을 야생화에 빗대어 고통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리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다.

이 곡 역시 선정 기준을 거의 만족시키고 있으나 10번 항목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음정을 낮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차)」 요약본 5~6급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 등의 주제와 정보 전달하기(묘사하기) 등의 기능을 다룰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2) 노래 분석

<p>야생화</p> <p>박효신</p> <p>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p> <p>아무 말 못 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p> <p>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p>	<p>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p> <p>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p> <p>잊혀질 만큼만 팬찮을 만큼만</p> <p>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p>
--	---

<표 8> 박효신-야생화 노래 텍스트 중 일부

노래 전체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어휘와 문법 표현이 섞여 있고 ‘-던(중급/3급/전성어미)’, ‘-만(초급/1급/조사)’, ‘-르 만큼(중급/3급/표현)’이 반복된다. 반복 표현상에서만 보면 이 노래의 교육 대상자는 초, 중급에 가까우나 노래 텍스트의 서술 기법이 묘사와 서술 위주이고, 내용 또한 자아 성찰이라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소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여 이해에 어려움이 따르며, 반복되지는 않으나 활용된 어휘나 문법 표현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급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노래자료로 적합할 것이다. 급수별 어휘, 문법 사항들을 토대로 분석한 ‘야생화’의 1절 노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초급			
	1급		2급	
어휘	꽃, 하나, 바람, 얼굴, 말, 못하다, 이름, 모르다, 지나다, 날, 눈물, 있다, 하나, 몸, 그렇다, 너, 또, 번, 내, 오다, 좋다, 마음, 그, 길, 위, 이렇다, 괜찮다, 기다리다, 다시, 나, 피우다		하얗다, 얼음, 아무, 들, 흐르다, 차갑다, 기억, 그립다, 네, 떠나다, 남다, 서다, 잇다, 눈물, 끝	
문법	-ㄴ, -가, -에, -을(를), -어(연결어미), -였-, -도, -이, -어(종결어미), -는, -만, -아, -고		-게, -ㄴ	
	중급		고급	
	3급	4급	5급	6급
어휘	숨다, 떨리다	내밀다, 줄기, 햇살, 녹이다	피어나다, 달갑다	머금다
문법	-던, -ㄴ다, -여지다, -ㄴ 만큼		-았던	-라

<표 9> 박효신-야생화 노래 텍스트 분석

해당 노래자료는 직접 검색 외에 카테고리로는 시대순(2010-2019)에 해당하고 장르 순으로는 발라드, 교육 별 카테고리로는 고급-어휘, 문법, 상황별로는 개인 신상이라는 주제, 정보 전달하기(묘사하기, 서술하기), 태도 표현하기(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심정 표현하기)라는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인기도 역시 발매 이후 음원차트 1위 달성, 이후 약 2주간 각종 음원차트 1위 및 상 위권을 유지하였고, 가온 노래방 차트 기준 8주간 1위를 유지한 바 있으며 발매 당시 빌보드 K-POP 차트 1위, 2019년 11월 현재까지 해외 리액션 영상이 올라오는 등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이다.

(3) 추천 학습활동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초급과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노래와 같이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노래의 경우 단순 직역으로 해석해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 사람의 경우 위 노래를 단순히 꽃이 개화하는 이야기가 아닌 화자가 야생화처럼 여러 시련을 겪고 결국 꽃을 피우리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유 표현에 대한 이해와 맥락에 따른 언어 표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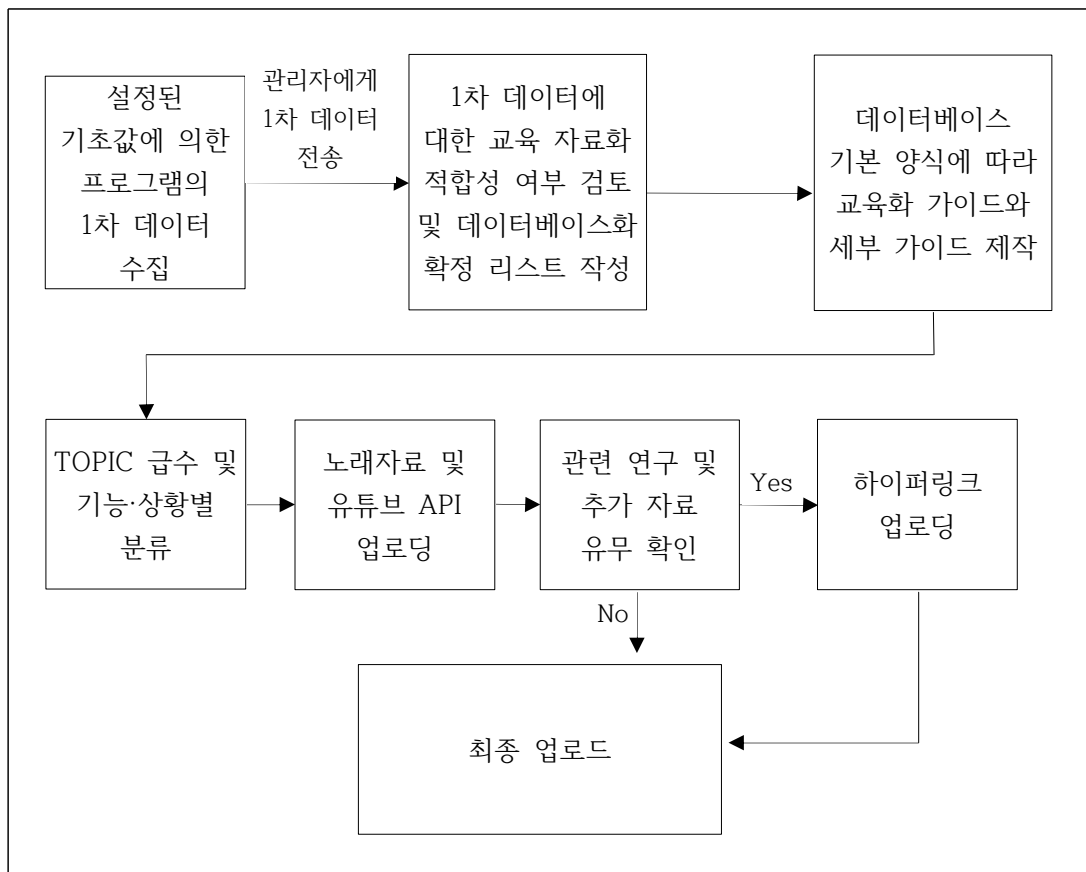
따라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한 이해’와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른 언어 구분’,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고급 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단순히 노래 텍스트에서 드러난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교수자는 위 노래를 들려주고 학습자들이 해당 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김춘수의 꽃은 이름이라는 상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박효신의 야생화 또한 ‘이름도 몰랐던 야생화’가 개화하는 하나의 꽃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이 둘을 비교하여 시와 노래에 담긴 ‘꽃’의 의미를 분석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후 교수자는 학습자별로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꽃의 꽃말’을 찾게 한 다음 그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 또는 시를 작성, 이후 자신의 꿈을 덧붙여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시와 노랫말의 표현 차이, 두 작품에서 꽃으로 대변되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의미 탐구, 직유와 은유 표현에 대한 이해와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한 추상 표현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아카이빙 절차와 아카이브 청사진 및 설명

이 절에서는 아카이브 실물 구축을 위한 아카이빙의 구체적 절차와 구현할 아카이브의 청사진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카이빙 절차는 3장의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원리와 기초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아카이브의 청사진은 4장의 예시를 기본으로 한 사이트 스케치를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다. 덧붙여 모델링 프로그램은 Figma사의 목업 툴(Mockup Tool)³³⁾을 활용하였다.

1) 아카이빙 절차



<표 10> 아카이빙의 절차 구현도

33) 목업 툴(Mockup Tool)이란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기획·제작을 위한 모델링 툴을 말한다. 다른 웹 디자인 툴과는 다르게 파워포인트 시스템을 차용하여 간편하게 UI제작을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디자인 모델링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아카이빙의 절차는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음원 자료의 1차 분석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화 적합성 검토를 기점으로 시작한다. 1차 분석으로 해당 음원의 급수별 난이도가 설정되고 반복되는 어휘, 문법 사항 등이 정해지면 관리자는 2차 분석 요소에 해당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인의 심상 유무, 교수자의 재량에 의한 교육 가능성 등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음원의 리스트를 확정한다.

관리자는 이후 리스트에 해당하는 음원의 텍스트를 추출, 1차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될 수 있는 문법 사항을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이들 자료를 TOPIC의 급수별, 기능·상황별로 분류하여 저장 및 아카이브에 업로드한다. 기본 자료 업로딩이 끝나면 유튜브 링크를 통해 음원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련 연구 자료 및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링크를 추가한다.

이러한 아카이빙 절차상의 주의점은 크게 두 가지로 유튜브 API³⁴⁾에 대한 활용 문제와 해당 음원과 텍스트의 저작권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2019년 11월 현재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개인적이거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관하며 상업적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라도 유튜브 측에서 인정하는 광고 제한을 지키며 Embeddable Player만을 통해 유튜브 비디오를 상영한다는 전제하에 활용이 가능하다.’³⁵⁾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재 아카이브에 활용할 영상은 우리나라의 노래자료이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 또한 중요한데 이 경우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³⁶⁾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초 아카이브의 형태가 비영리의 교육 목적 사업의 성향을 띠다면 설립이 가능하고, 추후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이 노래자료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 절차이다. 다만 상기 내용은 아카이브의 실질적 구축 상황에 따라 일부 보완,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현재 구축될 아카이브 시스템과 같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34)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함수를 모아놓은 집합체를 뜻한다. 유튜브의 경우 'YouTube Data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아카이브 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35) 유튜브 서비스 약관 (<https://www.youtube.com/t/terms?preview=20191210#main>)

36) 정보라, 「유튜브 응용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불뚱'」, Bloter.net, 2013.04.29. (<http://www.bloter.net/archives/151292>)

2) 아카이브 작동의 실제

(1)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카이브 검색 방법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의 검색 방법을 택하였다. 검색어 입력 시 검색어 단일 입력, 카테고리 추가 입력, 카테고리 단일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고, 검색 결과 창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을 경우 바로 결과 창으로 연결, 그렇지 않은 경우 카테고리 혹은 검색어를 변경하여 추가·변경된 검색 결과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검색 방법은 보편적이고 편의성도 뛰어나 대다수의 사람이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손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시대순	1990년 ~ 1999년	2000년 ~ 2009년	2010년 ~ 2019년
장르순	발라드	알앤비	락 힙합 동요 트로트
교육별	초급	중급	고급

[그림 7]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1

2019년 4월 네이버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뉴스, 연예, 스포츠, 쇼핑 등 기존 검색 판을 전부 삭제하고 검색창만을 남겨둔 구글식 UI³⁷⁾로 개편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 현재에는 뉴스판과 검색 차트 판 등을 아이콘화하여 과거 UI와의 중

37) UI란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약자로 컴퓨터(혹은 모바일 등) 사용자가 데이터의 입력이나 동작을 편리하게 사용·제어하기 위하여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Ex : 과거의 경우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하여 실행, 현재의 경우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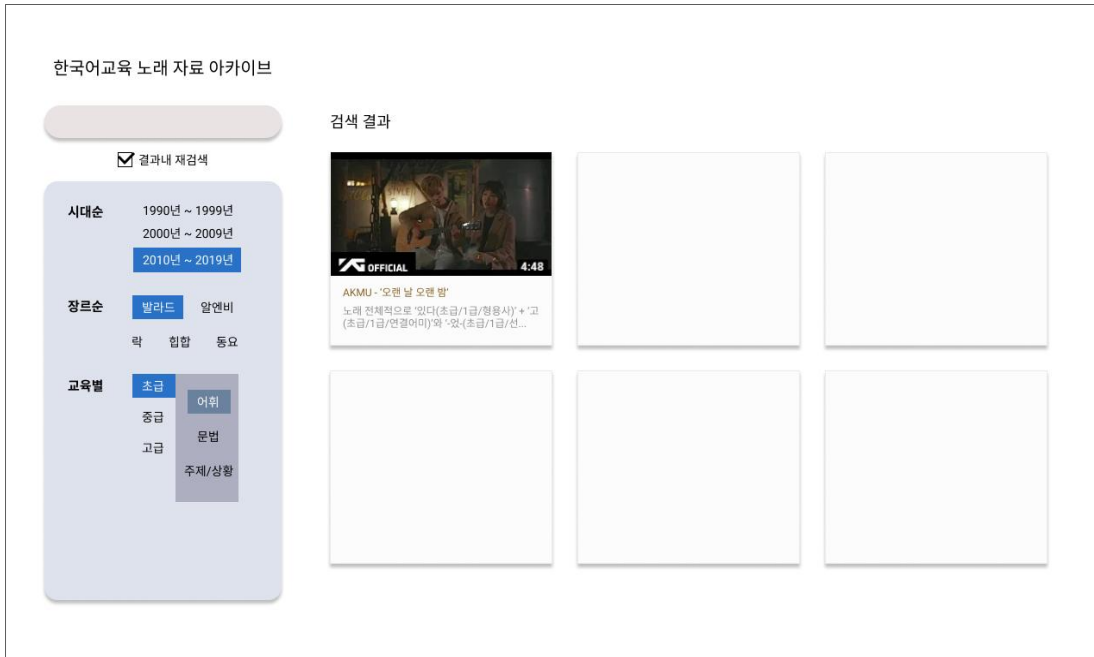
간 지점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구글의 서치 UI의 간소함, 편리함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색 UI는 간편하고 보기 쉽고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구축할 아카이브 역시 기초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능들을 간소화하여 직관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8]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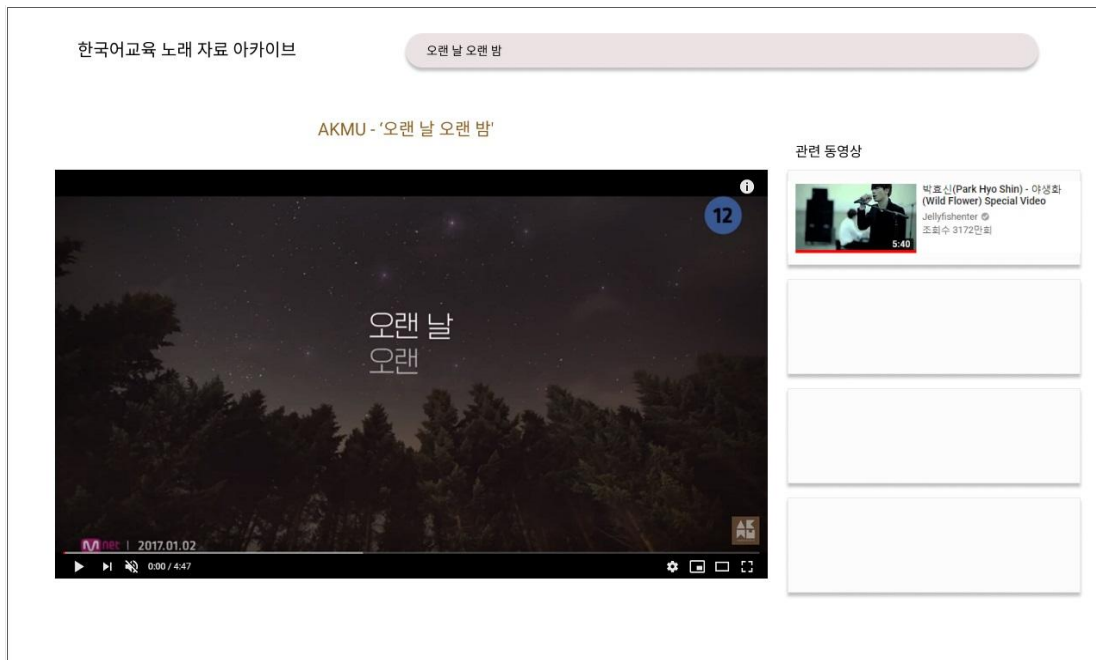
두 번째 그림은 결과 내 재검색이나 카테고리 선택에 따른 이펙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은 검색 및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통해 세부검색을 할 수 있고 시대순, 장르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교육 별 검색 시 초·중·고급을 클릭하면 어휘, 문법, 주제/상황 탭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세부내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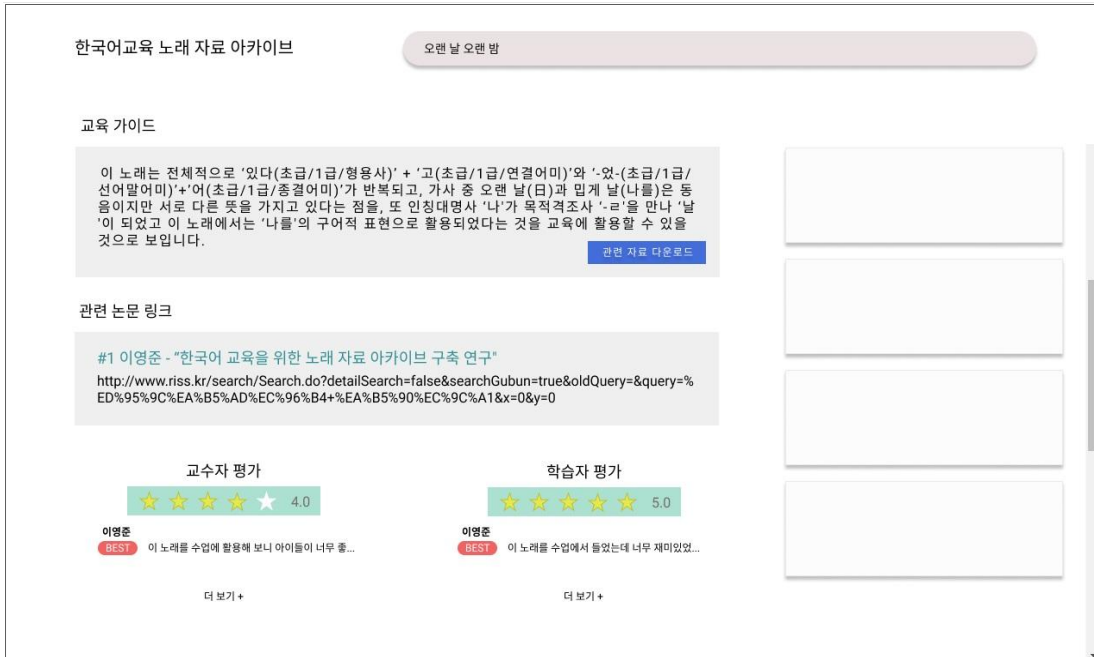
세 번째 그림은 검색 결과 탭으로 좌측에는 아카이브 내 다른 내용을 검색하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검색 기능을 유지해두었고, 검색 결과 내 세부 검색을 위해 결과 내 재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장르별 검색에서 발라드를 치고 들어오면 발라드 노래를 활용한 교육 자료가 나타나는데 이중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오랜 날 오랜 밤’을 검색하면 위 사진의 자료가 검색되는 방식이다.

또한 노래자료 탭은 유튜브 섬네일을 제공하여 가수나 뮤직비디오 등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에는 가이드 내용 중 일부를 노출해 사용자가 해당 곡 활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림 10]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4

네 번째 그림은 노래자료 페이지 중 상단의 그림이며, 이 부분에서는 가수명, 노래 제목, 유튜브 링크를 통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검색 창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다른 노래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우측 관련 동영상 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래와 관련 있는 다른 노래를 제시해준다. 관련 동영상의 원리는 해당 곡을 검색한 사용자가 본 다른 동영상을 기록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며, 현재 임시로 달아놓은 '야생화'라는 노래자료와는 관련이 없으나, 노래 장르적, 문법 교육상의 유사성 등과 관련이 있다면 노출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11] 한국어 교육 노래자료 아카이브 청사진 5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림은 노래자료 페이지 하단이며 여기서는 교육 가이드 내용 중 일부와 관련 논문 링크, 교수·학습자의 별점 평가 및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가이드에서는 관련 자료 다운로드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오랜 날 오랜 밤, 아는 사람 얘기, 야생화에서 들었던 지도 예시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 논문 링크는 추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등 학술연구논문 사이트들과 협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수자 평가와 학습자 평가는 교수·학습자 간의 연계를 위해 제작된 커뮤니티 성 시스템으로 별점 표기와 숫자 표기를 병기하여 해당 노래자료에 대한 평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댓글란은 베스트 댓글 내용 중 일부를 노출, 더 보기를 통해 이 노래자료에 대한 다른 교수·학습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청사진은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시스템을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한 것이고 실제 아카이브 제작을 위한 프로토타입 페이지라 할 수 있다. 실제 개발은 이보다 더 디테일을 살려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오늘날 방탄소년단(BTS)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K-pop은 한국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일부 마니아층이 듣는 음악에서 벗어나 주류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인지도 측면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과거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혹은 한국 유학을 오는 이유가 취업과 관련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노래가 좋아 한국 가수를 동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일례로 올해 7월 11일에 종영한 M-net의 유학 소녀라는 프로그램은 팝의 본고장인 미국부터 일본, 러시아, 태국,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 제작한 노래는 유튜브 조회 수 2,760,000회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에 데뷔한 K-POP 그룹인 Exp-Edition과 Coco Avenue라는 그룹은 모두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K-POP 그룹으로 이제 한국 대중가요는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인지도와 수요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노래자료의 부족과 교육 자료화의 어려움으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교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수·학습자 간 커뮤니티를 연계를 활성화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활성화하고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설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첫 단계로 먼저 아카이브의 개념과 유형, 노래 활용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아카이브의 개념과 유형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아카이브부터 디지털, 웹 아카이브로의 변천사를 형태, 성격, 매체에 따라 정리·확인할 수 있었고, 노래 활용 교육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앳킨스-쉬프린 기억모형, 로자노프의 암시적 교수법의 분석을 통해 노래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다중지능 이론과 인지심리학, 비언어적 교수법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질적 단계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래 선정 방법의 유형과 시대적 특성 검토를 통해 픽셀부터 시작된 노래 활용 한국어 교육의 노래자료 선정 방법을 종합·검토하였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및 요소들을 확인하고 구축 상의 지향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을 되짚어 보고 앞서 분석한 선정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별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청사진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노래자료가 교수·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또한 노래를 활용한 교육에서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노래자료 아카이브의 활용의 실제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상의 문제나 연구 기간 등의 문제로 이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어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아카이브 구축 시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자료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른 시일 내로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진다면 차후에 나올 노래들 또한 자연스럽게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에 맞추어 저장될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자료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자 간 커뮤니티의 연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자 간 피드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면이라는 학습 현장의 특성상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웹 공간에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접근이 쉬워지며, 자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래를 배운 타 기관 학습자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무분별한 댓글은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래를 활용한 교육에서 교수자의 편의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교수자에게 교재 준비의 수월성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하더라도 준비절차가 복잡하다면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 노래자료 아카이브는 한국어 교육에서 노래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노래자료 아카이브 구축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추가·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문 학술자료 사이트와의 연계, 나아가서는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계까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그에 따른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노래자료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더 많은 한국어 교수·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 나아가 한국어 교육 발전 자체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 논문

- 국가기술표준원, 「KS X ISO 15489-1」, 국가기술표준원, 2007.
- 권세일, 「춘향가 원형 아카이브 구축과 교수·학습자료로서의 활용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 김경지,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영화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수업 활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달수, 「Pop song을 이용한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덕경,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노래 활용 수업지도 방안 연구」,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2017.
- 김미숙, 「팝송을 활용한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아름,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성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 김중섭 외,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차)」, 국립국어원, 2017.
- 김진옥, 「고등학교 일본어 수업에서의 노래활용학습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김학현, 「노래 중심의 교양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김혜림,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0.
- 김혜민,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이 어휘 습득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대학원, 2017.
- 곽셀 튀르코쥬,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 나옥주, 「동요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 방안」,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노동조, 곽승진, 장윤금, 「국립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문헌 및 사례고

- 찰」 vol.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8
- 노문희, 「게임 기반 팝송 수업이 초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학습 태도 및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8.
- 두위, 「한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중국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2007.
- 류희정,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박세미, 「팝송 및 UCC 활용 초등 영어 수업을 위한 실행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박수정,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박은아,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과 교수법에의 적용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박재희, 「노래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박지은, 「마을아카이브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2015.
- 변혜원,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손정, 「한국어교육에서의 전래동요 활용방안 연구-말놀이노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 송재란, 「케이 팝(K-POP)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향상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신예진,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효용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절차」,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7.
- 심준우,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 양윤희, 「교사와 학습자 협동 중심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법 연구-게임과 노래를 이용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양지연,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스페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
- 어혜주, 「K-POP을 활용한 한국어 흥내표현 교육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여은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수업 방안 연구-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
- 유승원, 「한국어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에 있어서의 시각 콘텐츠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2.
- 윤성진,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모형 연구-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윤주은, 「한국어 교육에서 전래 동요 활용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4.
- 윤지은,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아카이브의 교육 자료 개발방안 연구-초중고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 이건칠, 「상승으로 배우는 프랑스어-동요를 활용한 일반계 고등학교 프랑스어 1 수업 모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 이동욱, 「노래를 활용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이성재, 「교육공동체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8.
- 이인혁,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이태은, 「아카이브(archives)를 활용한 역사수업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장윤금, 노동조, 박승진, 「국립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문헌 및 사례고찰」 vol.3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8.
- 전호순, 「대중가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조용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

- 정영순, 「드라마 OST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5.
- 조소연, 「디지털 시대의 영상 아카이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09.
- 조정임,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1.
- 주혜성, 「K-POP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최석현,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의 필요성 고찰-아카이브 전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3
- 한선화,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구어 교육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후인, 투이 미 웬,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

저서

- 강명숙 역(Elizabeth Yakel), 『아카이브 만들기』, 도서출판 진리탐구(주), 2003.
- 강현화 외 5명,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한글파크, 2016.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기초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4.
- 곽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도서출판 선인, 2016.
- 곽지영 외 9명,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3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민윤기 역(Margaret W. Matlin), 『인지심리학』, 도서출판 박학사, 2015.
- 박권생 역(Stephen K. Reed), 『인지심리학』, (주)시그마프레스, 2006(3쇄 2010).
- 박창호 외 6명, 『인지학습심리학』, (주)시그마프레스, 2014.
- 백육인, 『디지털 데이터·정보·지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신현정 역(Robert J. Sternberg·Karin Sternberg), 『인지심리학』 7판, 도서출판 박학사, 2016.
- 임진희 외 5명, 『인간과기억아카이브 백서』,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5.
- 전병만 외 4명 역(Jack C. Richards, Theodore S. Rodger), 『언어 교육의 접근

- 방법과 교수법』 3판, 도서출판 케임브리지, 2017.
-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3판, 아세아문화사, 2013.
- 한국기록관리협회, 『전자기록물의 이해』 한국기록관리협회, 2009.
- 한국어능력시험연구회 편저, 『2018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한 번에 통과하기』, (주)시대고시기획, 2018.

기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2019. 09. 20
- 국립극장 공연예술 박물관(<https://ntok.go.kr/kr/Museum/Main/Index>) 2019. 09. 20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http://hmarchives.org/>) 2019. 09. 20